

국어의 특징

1) 음운의 특징

- ① 국어의 음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음운 대립이 있다. 국어의 자음은 다른 언어의 자음과는 달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서로 대립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서양어들이나 일본어가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의 대립을 이루는 것과 대조적이다.
- ② 국어에는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국어의 마찰음에는 /ㅅ, ㅆ, ㅎ/ 밖에 없는데, 영어는 더 많다. 다시 말해 국어에는 마찰음의 수가 파열음의 수보다 적은데 비하여, 영어 등 외국어는 그 반대이다.
- ③ 음절 끝 위치에 오는 파열음들이 파열되지 않을 수 있다. 즉 파열음이 음절 끝 위치에 올 때에는 터트림의 단계를 갖지 않고 닫힌 상태로 발음되는데, ‘밭’이 [반] 으로 발음되거나 ‘꽃’이 [꼇] 으로 발음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 ④ 국어에서는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나 ‘ㄹ’이나 ‘ㄴ’이 오지 못한다.
- ⑤ 국어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모음 조화란 ‘ㅏ’, ‘ㅑ’는 ‘ㅏ’, ‘ㅑ’끼리, ‘ㅓ’ ‘ㅕ’는 ‘ㅓ’ ‘ㅕ’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다. 이는 그 성질이 비슷한 모음끼리 결합함으로써 발음을 쉽게 하고자 함이다.

2) 어휘의 특징

- ①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 ② 국어에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일본어, 서양의 여러 언어들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많다.
- ③ 고유어에는 감각어와 상징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 ④ 우리 국어에는 의성어나 의태어도 발달하여 있으며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또한 발달해 있다.

3) 문법의 특징

- ① 국어에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이들에 의해 실현된다. 이렇게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여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은 국어의 첨가어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첨가어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가리키는데, 이를 교착어라고도 한다.
- ② 국어에는 또한 단어 형성법이 발달되어 있다.
- ③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 ④ 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서술어는 주로 문장의 맨 뒤에 오지만, 다른 성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를 바꿀 수 있다.
- ⑤ 국어의 문장에서는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이는 중심이 되는 말을 뒤에 놓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원칙적으로 맨 뒤에 온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⑥ 높임 표현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도 국어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한글의 우수성

한글은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는 문화 유산이다.

- ① 아예 처음부터 문자를 새로 만든 예는 드물며, 그런 일을 했더라도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글은 독창적으로 발음 기관과 천지인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세종 대왕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 ②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반면 한글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정확히 알려져 있다.

* 한글의 제자 원리와 글자꼴

강 창 석 (충북대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제자원리와 글자꼴에 대한 의미 분석의 틀 발제

- 제자 원리란 글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된 이론과 방법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로 그 출생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성과정이 드러나 있는 한글에서만 언급될 수 있는 것이다.
- 글자꼴 : [문자]라는 기본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 제재를 화두 삼음

2. 제자 원리의 주요 특성과 배경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제자 원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1940년 경북안동에서 원본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을 발견한 이후)

- 음에 관한 분석과 이론 수립 : 초 중 종성
- 글자꼴 : 글자꼴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상형과 가획등의 원리
- ‘과학성’과 ‘독창성’ ! : 지금까지의 의견으로서는 성운학과 성리학이라는 외래 이론의 수용과 그것의 개량, 발전이라는 쪽으로 제자원리를 이해한 반면 이 글에서는 상식적인 것, 현재 생활에서 경험되어지고 사용되는 국어 표기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함

- ㄱ. 음(절)을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였다.
- ㄴ. 초성과 중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문자를 별도로 만들었다.
- ㄷ. 중성에 대해서는 따로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같이 쓰기로 하였다.
- ㄹ. 초성과 중성 모두 약간의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그 것을 이용하여 나머지 문자를 만들었다.
- ㄴ.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 따 만들고, 중성의 기본자는 천,지,인을 상형하였다.
- ㄷ. 초성의 경우 각 발음 위치별로 가장 약한 소리를 기본자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센 정도에 따라 거기에 획을 더하였다.
- ㄸ. 중성의 글자꼴 결정에는 음양오행설 등의 철학적 원리도 반영되었다.
- ㄹ. 실제로 글을 적을 때에는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해 적기로 하였다.

3. 한글과 글자꼴

4. 맺음말

한그림 본래 과학성을 지닌 문자라면 그에 대한 기술과 운용도 그 과학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한글의 진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 한글의 자모 순서 활용에 대한 확인

: 현대의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모 순서가 훈민적음의 자모 순서와 다르다. 훈민정음에서의 초성을 조음 위치(아/설/순/치/후)와 조음 방법(전청/차청/불청불탁)으로 분류하였으므로 그런 기준에 의해 순서도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자모 순서는 특정 이론에 근거 된 것이 아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현대 자모 순서
 ㄱ ㅋ ㆁ ㄷ ㅌ 훈민정음 자모순서

어떠한 특정한 원리 없이 단순히 외우게 하는 자모순서에 대한 교육 : 한글의 특성을 간과하고 무시한 데서 야기되니 결과이다. 한글은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 만들어진 문자로서 글자꼴 한하나에 이론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현재의 자모 순서는 그것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ㄴ ㄷ ㅌ 등의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발음 위치가 모두 같다는 점이다. 한글은 그와 같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그 것을 반영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글자꼴에 그 점이 이미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모 순서를 정할 때 이 들 문자들을 나란히 배열하게 되면 자형을 익히기도 쉽고, 일석 삼조의 부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한글의 제자 원리도 익히고 음 이론도 저절로 배우는 것이다.

***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

한글의 본래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아득한 옛날 문자 없이 언어 생활을 하던 선조들은 한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자로는 우리말의 음절 구조나 음운 체계의 많은 차이점 때문에 만족할 만한 표기 방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서기체, 이두, 구결, 향찰 등으로 표기법을 써 본 것은 바로 이런 고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한 것은 조선조 4대 임금 세종대왕이다. 훈민정음은 세종25년(1443)에 창제, 완성되고 28년(1446)에 반포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세종실록 25년 계해(癸亥) 12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달 왕이 친히 언문(諺文) 28자를 지었으니 글자의 모양은 옛 전자(篆字)를 본뻗으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지며 합친 뒤에야야 글자를 이룰 수 있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을 수 있다. 글자가 비록 간요(簡要) 하다고 하더라도 전환이 그지 없으니 이를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이른다. (是月 王親制諺文 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字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체계**

- 기본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뻗고, 여기에 가획을 하여 모두 17 자음자를 만들었다.(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初聲凡十七字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顎之形 脣音 ㅁ 象口形 齒音 ㅅ 象齒形 喉音 ㅇ 象喉形)
- 모음은 중성자(中聲字)라고 하여 하늘, 땅, 사람을 기본으로 기본자 ㆍ, ㅡ, ㅣ를 만들고 다시 이들을 결합하여 모두 11 모음자를 만들었다. (中聲字凡十一字 ㆍ 舌縮而聲深.....)
- 기본 문자 28자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각자병서(各字竝書)와 합용병서(合用竝書), 연서(連書)를 사용하여 자음 체계를 확립하고 ‘중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종성에 쓸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쓰인 글자들을 그대로 종성에 사용하게 하였다.

* 한글의 제자 및 운용 원리를 정리하면, 상형(象形), 가획(加劃), 병서(竝書), 연서(連書), 합용(合用)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ㄱ 比 ㄱ 聲出稍 故加劃 ㄴ 而 ㄷ ㄷ 而 ㅌ ㅌ 而 ㅁ 而 ㅂ ㅂ 而 ㅅ ㅅ 而 ㅆ ㅆ 而 ㅈ ㅈ 而 ㅊ ㅊ 而 ㅋ ㅋ 而 ㆁ ㆁ 而 ㅎ 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而唯 ㅎ 爲異

교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문자체계로서의 ‘훈민정음’과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란 뜻이다.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은 그때까지 사용되던 한자가 우리말과 구조가 다른 중국어의 표기를 위한 문자체계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배워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세종 25년(1443)에 우리말의 표기에 적합한 문자체계를 완성하고 ‘훈민정음’이라 명명하였다.

한편, 세종 28년(1446)에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설명한 한문해설서를 전권 33장 1책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책의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민정음이라고 할 때는 문자체계로서의 의미와 책으로서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수 - 학습 : 학습동기 유발 - 국어의 표현상의 특질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흥미 유발하기

- ① 상황 중심적 표현 : 상황에 따라 문장의 일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긴 것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기도 함(친구 둘이 중국 음식점에 갔을 때, “난 자장면. 넌?” 하고 물으면, “나도 자장면이야.” 하고 대답할 수 있음.). 그래서 우리말을 ‘상황 중심 언어’ 혹은 ‘상황 의존적 언어’라고 함.
- ② 상대 중심적 표현 : 대화에서 물음에 대한 “예”, “아니요.”의 대답이 한국어와 인도 유럽어에서 서로 다름. 영어에서는 대화 상대자가 무엇이라고 묻든지 간에 대답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사실에 따라 대답을 하고, 우리말에서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묻는 사람의 질문에 대응한 대답을 함. (예: “이것이 연필이 아닙니까?”라고 물을 때의 대답)
- ③ 우회적 표현 :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여운을 남기는 듯한 표현을 함(“내일 점심이나 하실까요?”라는 물음에 “전화라도 주세요.” 또는 “약속이 없기는 하지만” 등으로 대답함.). 한국어의 이런 표현에 대해, 청자에게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주면서 공격적인 인상을 피해 보려는 노력이 가져온 결과나 책임의 회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려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한글 창제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문자를 만들어 보게 하기

한글 만들기는 우선 여덟 개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닿소리 글자 다섯(ㄱ ㄴ ㄷ ㄹ ㅁ)과 홀소리 글자 셋(? ㅡ ㅣ)이다. 글자 만들기에 있어서 닿소리와 홀소리를 구별한 것은 이 두 가지 소리가 소리마디를 이룰 때 그 구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홀소리는 이름 그 대로 홀로 소리마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소리인데, 닿소리는 홀소리와 닿아야 내기가 쉬운 의존적인 소리이다.

'ㄱ(기역)'이란 글자는 이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 혀의 뒤쪽 곧 어금니에 닿는 혀의 부분이 곱사등처럼 굽어 목젖 가까이 붙는 옆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 글자의 소리와 같은 입 모양으로 나는 소리가 'ㅋ, ㆁ' 글자의 소리들이라, 그 글자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 졌다. 'ㄱ'에 금이 하나 덧붙은 'ㅋ'은 그 소리가 ㄱ[ㄱ] 소리에는 없는 ㅎ[ㅎ] 소리가 함께 나서 아주 거세어 지기 때문이다. 'ㄱ'을 겹쳐 'ㄱ'을 만든 것은 ㄱ[ㄱ] 소리가 ㄱ[ㄱ] 소리보다 목과 입 전체에 힘을 많이 쥐 내는 센소리가기 때문이다.

이 소리들을 모두 어금닛소리 또는 뒤혀소리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앞에 말한 대로 이런 소리들을 낼 때는 언제나 어금니에 닿는 뒤혀 부분이 굽어 오르기 때문이다.

'ㄴ(니은)'이란 글자는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혀의 앞쪽이 우묵하게 구부러지고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옆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 글자의 소리와 같은 입 모양으로 나는 소리가 `ㄷ(디근) ㅌ(티을) ㅌ(쌍디근) ㄴ(쌍니은)` 글자의 소리들이라, 이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어 졌다. 이 소리들을 모두 혀소리 또는 앞혀소리라고 부른다. ㄴ[느]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이고 ㄷ[드]는 그보다 굳은 소리가기 때문에 'ㄴ'에 금을 하나 더해서 'ㄷ'을 만들었다. 'ㄷ'에서 'ㅌ'이 나온 이치는 앞의 'ㄱ'에서 'ㅋ'이 나온 이치와 같다.

역시 'ㄴ'에서 먼저 나온 것이 'ㄹ(리을)' 글자인데, 그 소리가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금이 많이 덧붙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 소리는 혀끝이 ㄴ와 비슷한 자리에 닿되 혀의 모양이 많이 구부러지거나 떨게 되는 반혀소리다. 이 글자도 혀의 옆 모습을 본뻗음을 짐작할 수 있다.

'ㅁ(미음)'이란 글자는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아래위의 두 입술이 붙기 때문에 입의 모양을 본뜨고 모나게 다듬은 것이다.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와 마찬가지로 두 입술을 붙이고 내는 소리가 'ㅂ(비음), ㅃ(피음), ㅍ(쌍비음)' 글자의 소리들이라, 이들도 'ㅁ' 한 글자에서 먼저 나온 것이다. ㅁ[므]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이고 ㅂ[브]는 그보다 굳은 소리가기 때문에 'ㅁ'에 두 뿔을 더해 'ㅂ'을 만들었다.

'ㅅ'글자에 아래로 두 발을 붙이고 옆으로 눕힌 것이 'ㅆ' 글자이고, 'ㅅ' 글자를 두 개 겹친 것이 'ㅆ' 글자이다. 이처럼 'ㅅ'에서 'ㅆ, ㅈ'이 나온 이치는 'ㄱ'에서 'ㅋ, ㆁ'이 나온 이치와 같다. 이 글자들의 소리를 모두 입술소리라고 부른다.

'ㅅ(시옷)'이란 글자는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혀끝과 윗니 사이를 좁히고 그 사이로 바람을 스쳐 내게 되기 때문에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 글자의 소리보다 더 되게 나는 소리를 적기 위해서 겹쳐 만든 것이 'ㅆ(쌍시옷)' 글자이다. 또 이 글자의 소리보다 더 굳게 나는 소리를 적기 위해서 금을 더해 만든 것이 'ㅈ(지읒)'이고, 이 'ㅈ'보다 더 되게 나는 소리를 적기 위해서 다시 겹쳐 만든 것이 'ㅉ(쌍지읒)'이다. 이런 소리들을 묶어서 잇소리라고 부른다. 역시 'ㅅ'에서 먼저 나온 것이 'ㅅ(반시옷)'인데, 그 소리가 더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금이 더해 졌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 소리는 혀끝이 ㅅ[스]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혀끝을 올려 내는 반잇소리이다

1. 학생들이 우리 국어의 특질에 대해 물었습니다. 음운의 특질, 어휘의 특질, 문법의 특질을 각각 3가지씩 드시오.

- 음운의 특질

- : 국어의 음운에는 다른 언어에는 없는 독특한 음운대립이 있다. 예) ㄱ, ㅋ, ㆁ
- :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예) ㅅ, ㅆ, ㅎ밖에 없음
- : 음절 끝 위치에 오는 파열음들이 파열되지 않을 수 있다. 예) 발 : [받]
- : 국어에서는 첫소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나 ㄹ이나 ㄴ이 오지 못한다. 예) 로인 : 노인
- : 모음조화 현상이 있다. 예) ㅏ와 ㅓ는 ㅏ와 ㅓ끼리, ㅓ와 ㅓ는 ㅓ와 ㅓ끼리

- 어휘의 특질

- : 국어의 어휘는 크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 체계로 구성된다.
- : 국어에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일본어, 서양의 여러 언어들에서 들어 온 외래어가 많다. 예) 김치와 배추 등
- : 고유어에는 감각어와 상징어가 크게 발달되어 있다.
- : 의성어나 의태어도 발달되어 있다. 예) 풍당, 풍당, 알록달록, 얼룩덜룩 등
- :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여 있다. 예) Aunt :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이모, 고모 등

- 문법의 특질

- :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여 있어서 대부분의 문법적 기능은 이들에 의해 실현, 즉 첨가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첨가어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를 가리킨다. 예) 가, 을, 었 등
- : 국어에는 또한 단어형성법이 발달되어 있다. 용언+용언(오르내리다), 용언의 어간+명사(접갈, 덮밥)
- : 국어의 문장은 대체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서술어는 주로 문장의 맨 뒤의 오지만 어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꾸미는 말이 대개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온다.
- : 높임 표현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도 국어의 두드러진 특징

2. 한글이 세계적으로 드문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설명할 때 들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들어 보시오.

한글이 세계적으로 드문 독창적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파벳 문자, 상형문자, 설형문자의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웃 나라에서 좋은 문자를 쓰고 있으면 그것을 빌려다가 적절히 개량하여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글은 어떤 다른 나라의 문자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며, 대신 독창적으로 발음기관과 천지인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세종 대왕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 대부분의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한글은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세종 25년(1443) 음력 12월에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뒤 집현전 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례를 짓고 그것을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본 뒤 세종 28년(1446) 음력 9월 상순에 반포하였다.

3. 한글의 제자원리 중 연서의 원리에 대해 친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보시오.

: 한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몇 개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훈민정음 제자의 원리를 살펴보면, 우선 훈민정음 제자의 기본 원리는 상형의 원리이다. 초성과 중성에 다 같이 적용되며 초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다섯 글자가 기본이며, 이들은 발음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어졌다.

- 가획의 원리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다섯 글자에 획을 더하여, ㅋ, ㆁ, ㅌ, ㅍ, ㅊ, ㅌ, ㅎ, ㅎ를 만들어 냈다.
- 병서의 원리 : ㄱ, ㄷ, ㅌ, ㅍ, ㅊ, ㅎ 등을 가로로 나란히 써서, ㄲ, ㄸ, ㅆ, ㅌ, ㅍ, ㅊ 등을 만드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ㅅ, ㅆ, ㅈ, ㅉ, ㅊ, ㅌ, ㅍ, ㅊ 등도 만들어 썼다.
- 연서의 원리 : ㅁ, ㅂ, ㅆ, ㅌ, ㅍ, ㅊ 등을 세로로 이어서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데 ㅃ, ㅆ, ㅌ, ㅍ, ㅊ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어를 표기하는 데에는 ㅃ만 쓰였다.

① 우리의 한글은 '자주(自主), 평등(平等), 민본(民本)'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아래의 글에서 그 근거를 찾아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적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이란 이름에도 나타나 있지만 세종이 직접 서술한 (가)의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첫째, 중국어를 적는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적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자는 데 그 창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한자는 원래 중국어를 적기 위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그것은 중국어를 표기하기에 합당한 글자이지, 구조적으로 언어 체계가 다른 한국어를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글자이다. 이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는 자주(自主) 정신을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둘째, 모든 백성들에게 문자 이용의 혜택을 균등하게 입게 하자는 데 그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 한자는 대단히 복잡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없으면 매우 익히기 힘들고 또한 완전히 익히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자는 지배 계급의 문자는 될 수 있었으나 전체 백성을 위한 서민의 문자는 될 수 없었다. 문자는 문화의 소산이며 문화의 매개체이다. 문화는 전체 백성의 것이지 결코 일부 지배 계급의 특권적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훈민정음 창제를 주도한 세종이 의도이며 이상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등(平等)과 민본(民本) 사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나)에서 볼 수 있듯 이 아무 힘도 없는 백성을 위하여 군왕이 직접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진정한 민본 정신의 발로라 하겠다.

② 다음 글을 읽고 한글이 문자적 가치를 탐구하여 보자.

- ▶ 위 글을 바탕으로 하여 문자 발달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 칸을 적절히 채워 넣어 보자.
- 표의 문자, 음운 문자, 음운 자질 문자.
- ▶ 위 글과 도표를 바탕으로 한글의 문자적 가치를 말하여 보자.
- 한글은 문자 발달사에서 제일 발달 수준이 높은 '음운 자질 문자'이다. 즉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들은 기본 글자에

영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문도 표음문자이고 글자수가 26자에 불과하기에 키보드로 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고 익히기도 편하다. 하지만, 한글을 두벌식 기준으로 보면 24자로써 영어보다 적으니 영문과 비교할 때 2자가 적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타자의 두벌식은 한글창제 원리에 어긋난다하여 좋아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두벌 자판은 정부가 몇 개월만에 급조해낸 자판입니다. 다만, 정부가 컴퓨터의 기본자판으로 이런 자판을 내세웠기에, 우매한 국민들은 그냥 두벌식을 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국민의 대부분이 이 두벌식을 쓰게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한글을 좋아하고, 또 타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세벌식 자판을 많이 쓴다. 한글의 원리는 "자음"과 "모음"이 아닌, "초성","중성","종성"이다. 이에 충실하게 만든 것이 세벌식 자판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세벌식 자판은, 공병우 박사가 거의 평생에 걸쳐 만드신 자판이다.

그런데 공병우 박사가 자판 연구를 맥킨토시로 하셨고 그래서 기준도 맥킨토시였기에, IBM 계열 PC로는, 제자에게 더 적당한 자판을 연구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몇몇 분과 연구해서 조금 수정한 자판이 있는데 이를 "390"자판 이라 한다. 또 장애인을 위해 shift키가 필요 없는 자판인 "순아래자판"도 있다.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세벌식 자판은 최종자판이다.

이 "공병우식 세벌식자판"은 외워야 할 타자수는 영어의 두배 정도로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자음 모음이 아닌, 초, 중, 종성으로 나누다보니, 받침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중받침들이 다 들어갔으니 외워야할 자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두벌식 자판보다 실제 타자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안마태 신부님께서 만드신 "안마태자판"이라는 세벌식 자판이 있다. 안마태 신부님이 초기 미국 이민세대에게 한글의 교육과 한글 타자를 위해서 연구하시기 시작하신 자판이다. 그런 자판이 그 우수성을 지금 어느 정도 인정받아 KAIST에 서까지 같이 연구하고 얼마 전에 발표한 자판이다. 이 자판은 외워야할 자판이 많질 않다. 왜냐하면, 기본 글자외에는 다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이다.

공병우식 세벌식자판이라는 방식이 두벌식보다 외워야할 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학자나 타자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듣는 이유는 우선, "리듬감" 때문이다. 공병우식 세벌자판은 글자마다 오른손에서 시작해 왼손으로 끝나는 리듬이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모음과 받침이 대부분 왼손에 배치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왼손에도 많이 쓰이는 모음을 중복으로 배치함으로써 리듬감이 이중 모음 등을 쓸 때도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한 글자마다 "오른손시작, 왼손 끝". 이 리듬감이 타자속도를 더해주는 것이다.

두벌식은, 받침 여부에 따라서 끝나는 위치가 달라지며, 영타에서는 모음자체가 5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리듬감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벌식 자판은 "모아치기"가 가능하다. 모아치기란 한 글자를 한꺼번에 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타자를 치면, 한타 한타 차례차례 치게 되는데 순서가 틀리면 글자가 틀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아치기는 한 글자를 이루는 데에는 순서가 관계없다.

"각"이라는 글자를 칠 때, 모아치기를 한다면, ㄱ ㅏ ㄱ, 순서이든 ㄱ ㅏ ㄱ, ㅏ ㄱ ㄱ 순서이든 상관없이 한 글자를 만든다. 한글자가 "초, 중, 종"성 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즉, '자음 + 모음 + 받침'의 구조로 되어있고, 이 각각에 키가 달리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쳐도 프로그램적으로 글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영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한글 두벌식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단어 중간에 있는 자음의 경우 이것이 받침인지 초성인지 판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아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다.

첫째, 오타가 줄어든다. 어떤 순서든 상관없이 오타가 생기기 어렵다. 오타 수정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타자가 빨라진다.

둘째, 현재처럼 순서대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 한자를 칠 때 한꺼번에 꺾~ 누를 수가 있다. 차례대로 한자씩 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3개를 누르는 것이 속도가 빠르다. 현재 속기타자기들의 원리들이 모두 모아치기라고 한다. 이 모아치기는 영타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③ 다음의 자료를 보고 한글을 적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고, 이를 모둠별로 발표 하여 보자.

- * 모아쓰기 - 대한민국
- * 풀어쓰기 - 대한민국

▶ 한글은 세종 당시부터 앞의 경우처럼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 이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 한글을 모아 쓰게 되면 글자가 한눈에 들어와 의미 파악이 쉬워진다. 그러나 모아 쓰기 는 가령 인쇄할 때 한자처럼 활자를 여러 개 마련하여야 하는 불편을 주기도 하고, 컴퓨터 폰트(font)도 영문은 1바이트인 데 반하여, 한글은 자소를 모아 쓰기 때문에 2바이트 를 차지하여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한글 모아쓰기가 기계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 20세기 초반에 한글을 두 번째 방식처럼 풀어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적이 있다. 이 방식이 제기된 이유와 풀어쓰기의 장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 한글타자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야기다. 타자기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영어타자기는 그냥 글자를 순서대로 치면 되지만 한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웠다. 물론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들기는 했지만 역시 속도와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영어의 경우는 타자기를 사용할 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shift키를 사용한다. 그 외에는 그냥 치면 되는데 한글은 초성과 종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받침을 입력할 때마다 shift키를 눌러줘야 한다. 이는 한글의 기계화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다. 더불어 속도가 떨어져서 국제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풀어쓰기를 한다면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주시경과 최현배는 한글을 쉽게 만들고 기계화도 쉽게 하기 위하여 풀어쓰기를 제안한 적이 있다. 풀어쓰기를 주장한 첫 문헌은 주시경이 쓴 '말의 소리'인데, 그 책의 끝에 '우리글의 가로 쓰는 익힘'이란 제목을 달고서 풀어쓰기의 보기를 보였다. 그 후 최현배도 '글자의 혁명'에서 풀어쓰기론을 열렬히 신봉하였다. 최현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소리나는 이치와 일치하고, 쓰기와 박기(인쇄하기)와 읽기가 쉽고, 맞춤법을 매우 간편하게 줄이며, 온 세계의 수백 종 글자가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풀어쓰기는 한눈에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단어의 활용이 많은 우리글에서 어근이나 어간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 위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글을 구사하는 데 더 유리한 방식은 어느 것인지 토론하여 보자.

→ 오늘날 한글이 표음 문자이지만 모아쓰기를 한 결과, 어형을 고정시키기에 유리하고 시각적으로 독해에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 풀어쓰기 방법을 이용하여 선생님과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본다.

〈모아쓰기에 대한 변곡〉

선인들 중에는 모아쓰기를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그것 하나만은 세종의 실수라고 몰아붙인 이도 있었다. 무식은 가끔 사람들을 이처럼 무모하게 만든다. 모아쓰기를 버리면 한글의 개성은 반 이상 죽는다. 조그만 편의를 위해 개성을 죽이는 일은 우둔한 짓이다. 더욱이 모아쓰기는 독서 능률을 높여 주는 좋고 좋은 방식이다. 영어처럼 풀어 써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음절 단위로 끊어 읽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글은 미리 음절 단위로 끊어 모아쓰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늘으니, 늘어서, 늘도록'을 풀어쓰기로 해 보라. 얼마나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모습인가. 우리말처럼 조사와 어미가 더덕더덕 붙는 첨가어의 표기에는 어디에서든 '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모아쓰기야말로 절묘한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모아쓰기는 한글을 가장 한글답게 하는 요소요 우리의 일상 문자생활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게 해 주는 고맙고 고마운 방식이다.

한글을 생각하면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모음조화에 대하여

모음조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저서로 출간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 한국어 모음에서 모음조화 규칙이 있었다고 보는 쪽과 없었다고 보는 쪽이 있다. 이것은 자료의 해석 여부에 달린 것으로서 자료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매우 지난한 문제이다.

모음조화 규칙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는 이기문(1998)을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구개적 조화를 말한다. 예컨대 전설모음은 전설모음끼리, 후설모음은 후설모음끼리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의 모음조화는 일종의 동화현상이다. 이를테면 **우라우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대 한국어 모음체계에서는 모음조화 규칙이 매우 엄격했다고 보고, 적어도 전기중세국어시기까지(모음추이가 일어나기 전)는 이것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창제자들은 모음의 창제에 모음조화를 반영하였다고 본다.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쓴다는 말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곧 허물어진다. 16세기 ‘·’가 비어두 음절에서 ‘—’로 변하게 되자 ‘—’는 중립화하고 그리하여 모음조화의 붕괴가 촉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김동소(2003)는 고대 한국어 모음에서 모음조화 현상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대 한국어 모음에서 모음조화 현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전제에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원래 알타이어족의 모음조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 일어나는 데 반하여 고대 한국어에서 말하는 모음조화란 어근과 접사의 연결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차자표기에서 찾아내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이 점에서는 이기문(1998)도 동일하다. 그러나 속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모음조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보이는 모음조화는 음운의 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밀한 표기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양모음은 양모음끼리 음모음은 음모음끼리 쓰기로 한다는 ‘모음조화 표기법’이 생겼다는 것이다.

모음조화 표기법과 모음조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표기법의 개념이고 후자는 음운론의 개념이다. 사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표기법에서 발견되는 모음조화의 개념이 원래 알타이조어의 구개적 조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훈민정음의 표기법에 드러난 일치 현상을 두고 모음조화라 하기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언젠가 이인모 선생 등의 논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말 감각어에서 나타나는 말랑말랑, 물렁물렁; 꿈지락, 꿈지럭; 팔팔, 펄펄과 같은 예들에 있어서 소위 양모음과 음모음의 관계는 무시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동소(2003)은 표기법의 영향으로 문어 어형이 고정되고, 이 문어 어형이 구어에까지 확산되어 구어에서도 ‘모음조화’라는 규범이 만들어졌으며, 근대 한국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교양 있는 어형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보는, 역방향적인 논리를 취하고 있다.(김동소 선생이 이런 예를 든 것은 아니다.)

복잡하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견해는, 모음조화란 원래 알타이조어에 있는 구개적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이후 모음조화는 구개적 조화는 아니지만, 그 모음조화 체계에 대한 의식은 남아서 모음자의 제자에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의 변화와 ‘—’모음의 변화에 의해 모음조화의 체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모음조화는 원래 없었고 표기법상 제정된 것일 뿐이라고 본다. 참고로 이 견해에서는 ‘·’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갖는 음가는 없었다고 본다. 그럴 경우 ‘·’의 비어두 음절에서의 변화는 음운의 변화가 아니라 정교한 표기법을 지키지 못해 표기법이 흐트러진 것에 불과한 현상이 된다.

상식적으로 모음조화라고 하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끼리의 결합에서 생겨나는 느낌의 크고 작음을 떠올리는데, 그것과 모음조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

① 국어의 모음 조화를 탐구하여 보자.

▶ 의성어와 의태어를 중심으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예를 찾아보자.

→ 사랑사랑, 펄럭펄럭, 깜박깜박, 뒤뚱뒤뚱, 아장아장, 별령별령, 딸랑딸랑, 또각또각, 주워, 도와, 먹어, 무거워, 추워, 앓아, 누워, 키워, 앓아, 살아, 고와 등

▶ 다음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생각하여 보고, 이와 같은 예를 더 찾아보자.

→ ‘아름다워, 괴로워, 가까워’는 모두 모음 조화가 파괴된 단어이다. 이러한 예들은 ‘놀라워, 날카로워, 차가워’ 등과 같은 몇몇 비불규칙 형용사나. ‘오순도순, 깡충깡충, 보슬보슬, 생글생글, 자글자글’과 같은 의성어?의태어, ‘소꿉질, 오뎅이’와 같은 명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로마자 표기법

① 다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의 일부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하여 보자.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EK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 [월곶] Wolgot
벚꽃 [벚꽃] b대tkkot
한밭 [한밭] Hanbat

▶ 로마자 g, d, b와 k, t, p로 /ㄱ/, /ㄷ/, /ㅂ/을 실현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그대로 표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각 언어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운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ㄱ, ㄷ, ㅂ’을 ‘g, d, b’와 ‘k, t, p’로 표기하는 경우, ‘ㄱ, ㄷ, ㅂ’의 발음 표기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ㄱ/, /ㄷ/, /ㅂ/을 각각 두 가지로 표기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여 보자.

→ ‘ㄱ, ㄷ, ㅂ’을 ‘g, d, b’와 ‘k, t, p’로 표기하는 이유는 모음 앞에 올 때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의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어의 ‘ㄱ, ㄷ, ㅂ’은 어말과 다른 자음앞에서 터뜨림이 없고 닫음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런 소리를 적는 데에는 ‘g, d, b’보다는 ‘k, t, p’가 적합하다. 그리하여 모음 앞에 올 때의 ‘ㄱ, ㄷ, ㅂ’은 ‘g, d, b’ 그대로 적고, 자음 앞에 오거나 어말에 오는 ‘ㄱ, ㄷ, ㅂ’은 ‘k, t, p’로 표기하는 것이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있던 부분은 어두나 어중에서 유성음 또는 무성음으로 소리나는 ‘ㄱ, ㄷ, ㅂ, ㅈ’의 표기 문제와, ‘ㄱ, ㄷ, ㅂ’ 같은 모음의 표기 문제이다.

기존의 표기법은 외국인, 특히 영미언어권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한글 발음을 전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표기를 로마자 표기로 일대일로 대응시켜, 한글과 로마자표기 간에 서로 일대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무게를 두었다.

물론 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서도, 예컨대 ‘신라’를 ‘Sinra’로 적지 않고 ‘Silla’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 한국인의 경우 유성음과 무성음을 의식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ㄱ, ㄷ, ㅂ, ㅈ’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일하여 표기한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ㄱ’을 ‘o(반달)’, ‘ㄷ’을 ‘u(반달)’, ‘ㄴ’을 ‘u(반달)i’로 표기했던 것을 각각 ‘eo’, ‘eu’, ‘ui’로 개정했다. 여기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이 ‘ㄱ’을 ‘eo’로 표기하는 것이었다. 예컨대 거북선을 표기하면 ‘Geobukseon’이 되는데 이것이 “지오북시온”으로 읽

히기 쉬워서 ‘거북선’이라는 발음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논란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ㄱ’을 표기할 수 있는 다른 뚜렷한 대안은 없었으며, 어차피 로마자로 표기할 수 없는 음운이 존재하는 이상 이것을 읽는 사람 측에서 ‘eo’의 음가가 ‘ㄱ’이라는 것에 익숙해지는 방법 밖에 없다. 예컨대 중국어의 병음 표기의 경우도 c, x, ian, eng 등의 실제 발음은 일반 영문 철자의 읽는 법과는 상이한데, 마찬가지로 읽는 측에 익숙해지는 방법 밖에 없다.

가장 큰 이슈의 하나였던 것은 ‘ㄱ, ㄷ, ㅂ, ㅈ’의 표기였다. ㄱ, ㄷ, ㅂ, ㅈ는 어두에 올 때나 무성음 받침 뒤에 올 때는 각각 ‘k, t, p, ch’ 로 발음되지만, 모음?유성음 사이에 끼일 때는 유성음화하여 각각 ‘g, d, b, j’ 로 발음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ㄱ, ㄷ, ㅂ, ㅈ’가 유성음화하는 경우 ‘g, d, b, j’로 적고, 무성음일 때는 ‘k, t, p, ch’로 적었다. 그러면 ‘ㄱ, ㄷ, ㅂ, ㅈ’와는 구별이 안되었다. 그래서 ‘ㄱ, ㄷ, ㅂ, ㅈ’는 ‘k, t, p, ch’ 으로 ‘(어퍼스트로피)’를 덧붙여서 구분하였다. 현재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 없이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평소 유성음과 무성음을 인식하지 않는 우리에게 후자가 편리하지만, 실제로 외국인(주로 영어권)에게 발음시켰을 때는 현실의 발음과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은 단순히 영어권의 외국인에게 발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로마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의 인명이나 지명, 문화재 등의 고유 명사, 또는 한글을 표지(標識)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전국의 (도로)표지판, 관광안내판, 지도, 서적 등에 표기된 것을 바꾸는 데 엄청난 돈이 들고, 또 이미 외국에 알려진 수많은 지명 표기가 바뀌는 데서 오는 혼란을 감수하고서까지 표기법을 바꿀 이유가 있느냐는, 개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80년대 이전에 쓰던 표기법이 현재의 표기법과 유사했었는데, 5공화국 들어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 표기법을 무시하고 논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급하게 채택해 버린 것이 바로 기존의 매킨-라이샤워 표기법이다보니, 우리의 국어 현실과 실정 같은 것은 완전 무시된 결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음운론

언어와 사고의 관계

모든 학문은 없던 것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의 발견 혹은 깨달음이다. 이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인간의 말소리는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이미 학습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학습은 유의미한 학습이 된다. 학습이 학습자의 삶과 무관하게 인식된다면 그 학습은 학습자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학습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꼬를 터주는 몇 가지 탐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기에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들은 앞의 제1대단원 “언어의 본질”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1)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의 종류

음성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에는 하품, 코고는 소리, 재채기, 딸꾹질, 기침, 숨 쉬는 소리, 트립 소리, 방귀 소리, 손뼉 소리, 혀 차는 소리, 휘파람, 뽀뽀하는 소리, 노크하는 소리, 웃음소리 등등 내는 사람의 성향과 기질, 원인과 의도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다양한 소리들이 갖는 의사소통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수업 활동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 중에 의사소통에 소용되는 소리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다음 질문은 말소리가 다른 소리에 대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우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말소리 외의 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경험이 있는가?
- “노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간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과 말소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소리가 가지는 다른 소리들과의 차이점은?
- 말소리는 의미에 따라 여러 종류의 분류가 가능한데, 다른 소리들은 어떠한가?
- 다른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소리를 생각해보자. 동물들의 소리를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어떤 소리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비슷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 말과 글,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 문제를 생각하여 봄으로써 말과 문자는 다르다는 것을 주지시킬 수 있다. 언어음과 문자를 구별하는 것은 음성과 음운의 학습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단원 도입 전에 음성과 관련시켜서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은 필요하다.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말소리 외에도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인쇄된 글이 그렇다. 그 밖에도 손짓을 한다든지, 수기를 이용한다든지, 거울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도 있다. 말소리 이외의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경적을 울린다든지 북을 치는 것도 그 한 가지 방법이며, 모스 부호도 효과적인 의사 전달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인간의 말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전상범, 1993 : 1).

말소리 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단들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문자이다. 문자가 사용되고 나서, 그리고 인쇄기술의 혁명적인 발달이 있고 나서, 인류의 사고방식과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학술적인 용어로 문자 문화라 한다. 이 문자 문화로의 변화가 발달인지 단순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 사이에는 인간의 사고 패턴을 결정짓는 어떤 요인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말소리와 문자는 가까우면서도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존재들이다.

문자 문화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말소리보다 문자 혹은 글을 더 중요시 하는 경향이 생겼다. 사실 문자로 표현되는 것은 말소리로 표현되는 것보다 정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말은 배움이 깊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반면, 문자는 배움이 깊은 사람들일수록 잘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되

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글은 어디까지나 글로서 말소리의 그늘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은 글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글은 말이 존재하고서야 가능한 수단이고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도 글보다는 말에 의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그것이 답을 수 있는 정보량에서도 글은 말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말은 오해의 소지가 그나마도 적은 데 비하여, 글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어느 때에는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의식적이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글이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 밖에도 글은 신문이나 잡지, 문학 작품이나 학술 서적의 모양으로 오래 남게 되므로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 버리는 말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아득한 태고에서부터 존재했음에 비해 문자의 역사는 고작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영어의 철자가 사용된 지도 1500년이 채 안 된다.

말이 글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글은 말소리를 기록하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글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글은 그 중요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다. 둘째, 지구상에는 아직도 글을 갖지 않은 종족은 있으나 말을 갖지 않은 종족은 없다. 셋째,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의사 전달을 위해 사용하는 말과 글의 비율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 이처럼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중요하다. 넷째, 말과 글의 차이는 이 같은 양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것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면접과 질문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주는가 비교해 보면 말과 글의 효용 차이를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가 말과 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해 준다.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1차적인 의사 소통의 수단을 빼앗겨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인 것이다. 여섯째, 인쇄물의 양이 문명의 한 척도이긴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전화의 보급률 또한 문명의 척도라는 점이다(전상범, 1993 : 1-2).

(3) 의사소통의 과정과 말소리 연구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간과하기 쉬운 신비로운 과정이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다. 학습자에게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에게 다음 과정을 생각하여 보게 함으로써, 평소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위들이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성학이라는 학문영역이 연구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나마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 심리적인 단계이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어떤 수단으로 전달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말소리를 이용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문장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언어권 내의 적절한 질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한다. 그러면 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뇌에서 신경을 통하여 호흡 기관과 발음 기관 및 조음 기관으로 전달된다.

둘째, 생리적인 단계이다.

뇌에서 전달된 명령을 받은 호흡 기관, 발음 기관, 조음 기관은 말소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만들어 낸 소리는 말하는 사람 자신과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만들어 낸 소리를 말을 듣는 상대방만 들으면 되지 왜 말하는 사람 자신도 들어야 하는가? 말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기 의도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기와 이어폰을 이용해 몇 분의 1초 정도 늦게 들려주면, 말하는 사람은 곧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말하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

리쳐 지연발화 피드백 효과라고 한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바로바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확인해야만 의사소통을 위한 발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물리적 단계이다.

화자의 발성기관이 공기를 자극하여 상대방의 귀에 일정한 음파 혹은 전파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킨다.

넷째, 음파가 듣는 사람의 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시 생리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말하는 사람의 음파가 듣는 사람의 고막을 진동하는 것이다. 고막을 진동한 소리는 귓속의 장치를 거쳐서 신경으로 전달된다. 신경으로 도달하기 전까지 고막을 두드렸던 애초의 소리는 증폭과 감폭을 반복하여 상당한 변형을 겪게 된다.

다섯째, 신경으로 전달되어 온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이것 역시 심리적인 단계에 속한다. 이 과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운론과 언어 심리학이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위 다섯 가지의 단계를 언어연쇄라고 한다. 이 중에서 제1 단계와 제5 단계는 음성학의 영역이 아니다. 음성학은 제2,3,4 단계를 다룬다. 제2 단계는 음을 어떻게 발음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 분야를 조음음성학이라고 한다. 제3 단계는 음파 그 자체이다. 인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음파의 성질이 연구되는 분야로서 음향음성학이라고 한다. 제4 단계는 청취음성학 또는 청각음성학이라고 불리는 분야로서 생리학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 제1,5 단계는 음운론과 언어심리학의 영역이다.

(4) 모음 사각도

모음 사각도는 교과서 57쪽에 제시되어 있다. 모음 사각도는 Daniel Jones가 제안한 것이다. 모음 사각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안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음은 객관적인 기술이 매우 곤란하다.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구강의 크기가 달라 그 높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다. 한편 모음을 발음할 때는 혀 외의 다른 기관들이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혀의 높이만으로 모음을 기술할 수도 없다. 다른 나라의 모음에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나라의 그 모음 역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그 언어에도 방언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언음에 기대어 설명을 해야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기댈 만한 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만약 어떤 다른 나라 음을 기본으로 한다면 그 다른 나라의 모음은 어떤 나라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합의가 있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Daniel Jones의 기본 모음 체계는 기술이 매우 어려운 모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흔히 Daniel Jones가 제시한 기본 모음이 어떤 특정 언어의 모음 체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의 모음 체계는 사실 음성학적인 것이다.

기본 모음 체계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입술을 평순으로 하고 혀는 마찰음이 되기 직전까지 끌어 올린 뒤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내밀어서, 가능한 모음을 발음하여 본다. 이것을 [i]로 한다. 이번엔 반대로 입술을 평순도 원순도 아니게 한 상태에서 입을 크게 벌려 혀를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뒤로 당기는데 그 때에 발음이 가능한 모음을 발음하였을 때 나는 모음을 [?]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앞쪽(전설)에서 나는 가장 높은(고설) 모음 [i]와 가장 뒤쪽(후설)에서 나는 가장 낮은(저설) 모음 [?]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정하여진 [i]와 [?]를 연결하여 청각적으로 등거리가 되게 나누고 그것을 사변형으로 알기 쉽게 바꾼 것이 교과서에 있는 모음 사각도와 같은 그림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기본 모음은 프랑스어나 에스파냐어의 체계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며, 영어와는 아주 무관한 것이다. Daniel Jones가 기본 모음 체계를 제안한 것은 어떤 언어의 모음 체계를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어떤 모음을 기술할 때 그것을 기본 모음 체계에 비교하여 기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Daniel Jones의 기본 모음(모음 사각도)은 어떤 언어의 모음을 서술하려고 할 때 객관적인 기준 척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물의 길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Daniel Jones의 모음 사각형을 우리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 57쪽의 모음 사각도는 편의상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거기에 정확한 의미의 ‘등거리 척도’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는 없다.

이 모음 사각도의 등장으로 자연 언어의 모음의 기술과 학습에는 편리하게 되었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모음 사각도의 기본 모음은 설명만으로는 배울 수 없다. ‘청각적 등거리’라는 개념은 배우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Daniel Jones에 의해 훈련된 일단의 음성학자들 밑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Daniel Jones가 취입한 테이프를 가지고 발음을 따라 하면서 귀가 밝은 사람에게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모음 사각도의 그림이 과연 혀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음향적 특성을 나타내는가의 문제가 있다. 실제 혀의 높이는 모음 사각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음 사각도는 사실상 실제 혀의 위치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모음 사각도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발음을 하면 실제 원하는 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뇌가 내리는 발성 명령 즉 우리가 인식하는 조음 작용과 실제 조음 작용 간에 거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환언하자면,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음 사각도가 모국어나 외국어를 학습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음 사각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나는 소리 가운데에서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음성은 사람마다 매우 다르다. 자료는 국어의 모음 [i], [ɪ]를 발음할 때 나는 소리를 시각화한 음성 스펙트럼이다. 똑같은 국어의 모음을 발음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음성 스펙트럼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그림 제시와 그에 대한 설명만 본다면 ‘같은 모음을 발음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정보만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 그렇기는 하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모음을 반복하여 발음할 때조차도 그것을 분석한 음성 스펙트럼의 모습은 같지 않다. 기계적인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일생동안 같은 발음을 두 번 반복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의사소통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또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언어학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알아도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학습 자료로서도 별 의미가 없다.

음성 스펙트럼이 언어학이나 문법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일정한 유형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 있다. 모든 사람, 심지어 개인의 발음조차도 같을 때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발화되어진 모든 발음들은 그 발화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모두 다르다. 이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고 있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패턴을 관찰한 결과 음성학에서는 형성음(포먼트, formant)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특별한 통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교과서 52쪽의 음성 스펙트럼 그림을 보자. 곡선이 나타나 있는데, 곡선의 정상 부분을 형성음이라고 한다. 국어 모음 [i]의 경우 맨 왼쪽의 형성음과 그 다음 형성음과의 거리가 국어모음 [ɪ]에 비하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의 경우 가장 낮은 주파수대의 형성음은 대략 200Hz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 형성음은 대략 2,100Hz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반하여 [ɪ]는 500Hz에서 첫째 형성음이 형성되고, 그 다음 약 1,000Hz에서 둘째 형성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형성음과 둘째 형성음의 거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되고, 그것을 보아서 어떤 모음이 발음되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하여 첫째 형성음과 둘째 형성음은 발음 기관의 어느 부분의 공명 상태를 나타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서는 이 사실이 다소 복잡한 내용의 지식을 전제해야 하므로 굳이 학습자들에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는다.

교과서에 52쪽에 제시된 그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사람은 같게 듣는 소리가 기계를 통해 분석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언급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그림에도 음성 스펙트럼을 통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그 수치가 그려내는 일정한 패턴의 모양을 통하여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만을 음성이라고 한다.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이 음성은 각양각색이다. 사람마다 목소리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날카롭고, 어떤 사람은 굵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할 때의

장소, 상황에 따라 큰 소리를 내지르기도 하며, 달콤하게 속삭여 말하기도 한다. 때로는 힘없는 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시끌벅적 소란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사람처럼 음성을 인식할 줄 아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현대 과학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사람의 음성이 이처럼 물리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처럼 음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도 구분해 내지 못하는 말소리를 사람이 척척 알아듣는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언어 능력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위에 인용한 교과서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위 글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람보다 정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음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컴퓨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의 말소리를 비롯하여 소리를 분석하는 기술은 상상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있다. 단지 분석기술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처럼 음성을 인식할 줄 아는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있다고 말 할 수준이 현재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러나 사람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일은 객관적 분석으로 밝혀질 수 없는, 즉 계량화할 수 없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 이것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그러므로 “컴퓨터도 구분해 내지 못하는 말소리를 사람이 척척 알아듣는다”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인간의 말소리는 컴퓨터가 계량화하고 범주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구절을 앞에 넣어서 읽어야 한다. 어떤 질서체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말소리를 분석하는 것은 기계적인 의미에서의 질서 정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위의 첫째 문장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말할 때 사용되는 소리만을 음성이라고 한다.’도 오해가 없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문장에서 ‘음성’의 정의는 ‘음성학’에서 한정적으로 정의된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이다. 전문 용어로서 ‘음성’과 일상에서 사용되는 ‘음성’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고, 전문 용어로서 사용될 때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음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

탐구 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음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차 소리, 피리 소리
- 아기의 울음소리, 가수의 노랫소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
- 음성이 참 예쁘다. 그 가수의 음성은 저음이다.

- ‘음성’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을 바꾸어 넣어 보자.
- 바꾸어 넣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과 ‘소리’의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바람소리, 개 짖는 소리, 손뼉소리, 기침소리 등은 말에 쓰이는 소리가 아니므로 음성이라 하지 않고 음향(音響)이라고 한다.”는 사전적 정의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음성을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음운의 실현 단위”라고 하였다. 위 탐구 문제에서 표적으로 했어야 하는 단어 ‘음성’의 의미는 음성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로서의 ‘음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위 문제는 이러한 기초적인 뜻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야 한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무심결에 사용해온 ‘음성’이라는 단어와 ‘소리’라는 단어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음성’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에 더 근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교사용 지도서는 ‘음성’ 대해 내린 자신의 정의와는 모순되는 방식으로 이 탐구 활동을 한정하고 있다. 즉 ‘음향(소리)과 음성의 차이’를 구별하는 활동으로 이 탐구 활동을 한정하고, 음성의 의미를 ‘인간의 발음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소리’로 보고 있다.

결국, 이 탐구 문제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전문용어로서 ‘음성’의 정의에 다가서게 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도록 애초에 계획되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사용하여 온 ‘소리’, ‘음성’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사용된 ‘음성’이 음성학에서와 같이 엄밀한 한계선을 갖는 의미의 단어 ‘음성’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가수의 음성은 저음이다.’를 ‘그 가수의 소리는 저음이다.’라고 하면 이상한 것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성악이나 서양의 성악을 듣는 사람들

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표현이다. ‘그 사람은 소리가 낮고 따뜻해.’, 또는 ‘저 사람의 소리는 높아.’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음성’도 ‘음운의 실현 단위’로 쓰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목소리’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다.’에서 ‘음성’은 그의 ‘언어음으로 쓰이는 소리로서의 분절음(음소)’이 따뜻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말할 때 내는 소리’ 또는 ‘목소리’가 따뜻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음성’은 ‘사람이 목으로 내는 소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때의 음성은 ‘음향’과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사람이 내는 울음 소리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음성’이겠지만, 그것은 음향일 뿐, 언어음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소리의 일종이다. 그런가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소리’라는 단어가 ‘말의 내용’을 뜻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이 탐구 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음성학이나 음운론에서 의미를 가지는 ‘음성’이라는 용어는 사실 ‘사람의 목소리’라는 넓은 의미의 ‘음성’이 아니다. 만약 ‘사람의 목소리’도 ‘언어음’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성학이나 음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음성’이 아니라 ‘음향’에 불과하다. 이런 것인데 단지 두 번째의 예 ‘아기의 울음소리, 가수의 노랫소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 등을 ‘아기의 울음 음성, 가수의 노래 음성, 아버지의 고함 음성’이라고 치환한 뒤에 ‘음성’과 ‘소리’를 구분해보게 하는 것은 너무 작위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활동이다. 이 탐구 활동에 있는 ‘음성’은 사실상 ‘음향’과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탐구 활동은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의미를 갖는 학술 용어 ‘음성’의 의미를 ‘사람의 발음 기관이 내는 소리’라는 뜻으로 보아 너무 포괄적으로 다가간 나머지 ‘언어음’에 사용되는 ‘사람의 목소리 중 일부로서의 음성’의 의미를 갖는 ‘음성’에다가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교사의 민감한 간섭이 필요한 활동이라 하겠다.

탐구 1.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다음 단어들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만드는 요소를 찾아보자.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 이 음을 음운(音韻)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 ‘불’, ‘뿔’은 다른 음들은 모두 같은데 단지 초성에 /ㅍ/, /ㅂ/음 중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어에서 /ㅍ/, /ㅂ/음은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이하략)

위 인용한 부분에서 학생들은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는 음운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명 방식이긴 하지만 문장의 의미가 얼른 와 닿지 않는다.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와 닿지 않는다는 말이다.

음운을 설명할 때 흔히 있게 되는 설명으로서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라는 말을 분명히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장황하더라도 말을 풀어주어야 한다.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구성하고 있던 음 중 하나를 다른 음으로 바꾸어 보았을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단어가 되면 그 어떤 음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와 같은 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운 문장이다.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무엇의)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는 ‘무엇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된 모호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한다면 ‘의미를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다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탐구 2.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음성과 음운의 개념 및 그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물음(중심내용만 요약함): 커피의 피는 [fi]로 하는 게 맞습니까, [phi]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답(중심내용만 요약함): 영어에서 /f/와 /ph/는 다른 음운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말에서는 같은 음운 /ㅍ/에 속해 있으므로 외래어 ‘커피’를 발음할 때는 [phi]로 발음하는 것이 맞고 ‘coffee’를 영어로 발음할 때는 [f]로 해야 맞습니다.

위 인용문에 나온 답변에 한 가지 사실이 첨가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지문도 이해하지 못한 채 탐구 활동에 들어가기 쉽다. 위 인용문의 답변에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개념이 미숙한 학습자에게 비논리적인 구조로 비치거나 또는 무언가 시원치 않은 답변으로 비칠 수도 있다. 물론 결론만 읽으려는 학습자들은 아무 문제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상적인 학습 상황을 전제한다면 이런 안일한 학습자는 안내를 받

아 성실한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아무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위의 답변이 논리적으로 분명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한 가지 분명해져야 하는 개념어가 있다. ‘외래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빌려 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외국어는 다른 나라의 말이다. 커피 역시 외국어이지만 외래어로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이다.

둘째, 외국어이지만 외래어로 들어온 단어일 경우 우리말로 취급하고 발음도 우리말처럼 한다는 전제를 배경에 두고 있음을 밝혀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한국말을 하는 상황일 때 외래어인 ‘커피’의 ‘피’는 한국말답게 [phi]로 발음하고, 외국인과 대화하는 상황, 즉 외국어인 ‘coffee’를 말하는 상황일 때 ‘fee’는 외국어답게 [fi]로 발음한다.

이것을 지문의 제시와 함께 바로 알려주는 것보다 먼저 물음과 대답의 관계에 별 문제가 없는지, 대답은 충분한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거나 토론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어의 모음 중에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 있다.

이 문장은 모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학습자들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발음이 가능한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입술이나 혀가 그 한 모음을 발음하는 동안 특별한 변화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필요 없는 오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는 지적인 욕심이 있고, 무엇을 습득하려 할 때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게 되면 미궁을 헤매는 것과 같은 장애를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모음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반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온전한 모음이 되지는 못한다.

이 문장은 모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부분은 모음에 대한 설명으로서, 아직 음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중학교 생활 국어에서 음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학습하였겠지만, 온전한 학습상황에서라면 배운 것들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 문법 교과서의 인용문에서 보아 알겠지만, 그러한 회상과정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교사가 학습상황에서 임의적으로 회상 과정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 ‘반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온전한 모음이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음성학과는 달리 음운론에서는 환경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음운론에서 다루는 환경의 개념에서 볼 때 모음의 큰 특징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문법 교과서의 모음을 설명하는 이 부분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두어야 하겠다. 문법 교과서는 모음을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반모음을 모음에 편입시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모음은 음성학적으로는 모음에 속하고,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음운론적인 상황에서는 자음에 속한다. 모음을 음성학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편 반모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난데없이 음운론적인 설명을 끼워 넣는 것도 학습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관여가 필요하다.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온전한 모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된 문장을 읽히는 것은 무의미하다.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실생활에서의 언어음에서 반모음이나 자음만 발음되는 상황이 있는지 생각하여 보게 하고 이에 반하여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는’ 모음이 ‘음절을 이룬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상의 발음을 떠올려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기’를 모음 없이 발음해보라고 하면, [기], [그], [거]로밖에 발음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1. 국어의 단모음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위에 제시한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자신의 평소 발음대로 발음하여 보자.
- 본문의 모음 사각도를 참조하여 다시 발음하여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여 보자.
 - 그 동안 잘못 발음하여 온 모음은 무엇인가?
 - 여러 모음 중에서 특히 어떤 모음의 발음이 어려운가?

언어를 문자화할 때의 단위인 자소(字素)와 음운은 음운론적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이 둘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들을 구별하는 문제는 학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음운과 자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현재 문법 교과서는 / /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음소를 표시하고 있다. 이 자료의 다른 부분에서 음운론에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하여 소개한 바와 같이 발음을 표시할 때는 []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위 탐구 문제에서는 한글의 낱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를 제시하고 국어의 단모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자소임이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음운이라거나 발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 기호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탐구 문제가 요구하는 바는 위의 자소가 나타내고자 하는 언어음을 발음해보라는 것이다. 자소가 나타내는 언어음은 평상시 발음과 다를 수 있다. 자소가 나타내는 언어음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인위적인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과거 /ㅏ, ㅑ/가 이중모음이었다가 단모음이 된 것이나 구개음화라는 변이가 생겨난 뒤 이윽고 일정한 환경에서 /ㄷ/가 /ㅌ/로 변하게 되기 까지,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달리 막을 방도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ㅓ, ㅕ/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고, /ㅏ, ㅑ/를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실적 발음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관점을 달리할 것이지만, 분명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할 것이다.(이 문제는 말을 또박 또박하는 버릇을 들이도록 교육하는 문제와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언어학자의 일은 언어를 관찰하여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 하는 데 있지 규범화하여 순리를 거스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나타내는 언어음의 체계는 현재도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언어음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ㅏ, ㅑ, ㅓ, ㅕ’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다. 자소 ‘ㅓ’가 나타내는 언어음의 경우 ‘없다’의 ‘ㅓ’와 ‘업다’의 ‘ㅓ’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왔음에도 자소 상으로는 지금까지 구별되었던 적이 없었음도 주목할 만하다. 어쨌든 자소와 음운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소만을 기준으로 발음을 교정하려는 것 같은 태도를 느끼게 하는 것은 이 탐구 문제의 본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 문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국어 자소가 나타내고자 하는 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차적으로 표준발음 혹은 분명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이지만, 후자를 중점에 두어 학습자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익혀온 한국어의 틀을 불신하게 하는 것은 그다지 훌륭한 학습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2. 위에 제시된 모음들에 대하여 다음 자료들을 보면서 탐구하여 보자.

- 뇌, 외갓집, 괴롭다, 무죄
- 위, 쥐, 자취, 말귀

- 위 소리들을 발음하여 보면서 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자.
- 위 소리들은 단모음인지 이중 모음인지 판단하여 보자.

‘위 소리들을 발음하여 보면서’라고 하였으나, 위에 있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단어의 표기’이다. 문법 교과서 편찬자들의 사소한 실수이겠으나 올바른 개념 학습을 위하여 교사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위 표기가 나타내는 단어를 실제로 발음하여 보면서 입의 움직임에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자.”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표현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위 단어를 소리 내어 발음하여 보면서’라는 정도의 친절함은 갖추어야 한다.

3. 국어의 이중 모음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중략)

●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 ‘ㄴ/ㄷ’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이 문제에서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ㅣ’나 ‘ㄴ/ㄷ’는 자소를 나타낸다. 또는 한글의 낱자일 뿐이다. 문제가 본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나 []라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법 교과서가 그런 기호들을 아주 사용하지 않았다면 용납될 수 있겠는데 이미 // 기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기호 없이 자소를 음운처럼 취급하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표기와 소리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때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조음 위치라고 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중략)

파열음과 파찰음은 다시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조음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고, 마찰음의 경우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 나뉜다. 비록 비음과 유음에서는 조음의 세기가 의미 없는 자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어의 자음 체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만 언급하면 학습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60쪽의 설명이 마찰음도 조음의 세기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교사가 지적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음 중에서 비음 ‘ㄴ, ㄹ, ㅇ’과 유음 ‘ㄹ’은 발음할 때에 입안이나 코 안에서 공명을 얻기 때문에 울림소리이며, 이 네 소리를 제외한 열다섯 소리는 안울림소리인데, 이 중에서 ‘ㅂ, ㄷ, ㅈ, ㅊ’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가 된다.

위 인용문을 보면 울림소리는 공명음[sonorant]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ㄹ, ㅇ, ㄹ’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안울림소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인데, 문제는 ‘ㅂ, ㄷ, ㅈ, ㅊ’가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울림소리가 된다고 한 데 있다. 지금의 맥락으로 볼 때 울림소리라 하면 공명음을 말하는 것일 텐데, 공명음으로서 ‘ㅂ, ㄷ, ㅈ, ㅊ’가 어떤 소리인지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명음[sonorant] 자질을 가진 자음들은 성대울림[voiced]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ㅂ, ㄷ, ㅈ, ㅊ’가 울림소리 사이에 있게 되면 성대울림 자질을 가지게 되어 유성음화한다. 즉 성[vioced]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의 진술은 이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렇다면 ‘ㄴ, ㄹ, ㅇ, ㄹ’를 말할 때의 ‘울림소리’와 ‘ㅂ, ㄷ, ㅈ, ㅊ’가 울림소리의 영향으로 유성음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울림소리’는 결국 울려서 나는 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같기는 하더라도 구별되어야 하는 다른 자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역시 교사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 때 교사의 관여는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라기보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ㅂ, ㄷ, ㅈ, ㅊ’를 코나 입 속을 울려서 발음한다는, 그래서 울림소리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목청을 울려서 발음하는 것임을 알려주어야 본문을 읽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다.

62

한국+말: → 한국말 함박+눈: → 함박눈 구두+솔: → 구둣솔

요즘의 젊은 세대는 흔히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리의 길이는 우리말의 중요한 요소

이므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야 할 것이다.

음성학자 신지영 교수는 위의 ‘한국+말:’에서 ‘한국’은 ‘寒國’의 발음이고 ‘한:국’이 ‘韓國’에 해당하므로 ‘한국+말:’은 ‘한:국+말:’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었다. 매우 정중한 지적이다. 그러나 ‘寒國말’이 실제로 잘 사용되는 말이 아니므로 ‘한:국말:’과 ‘한국말:’은 변별되는 일이 없다. 이 때의 긴소리와 짧은 소리는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긴소리는 짧은소리와 대조되어야 길다고 느껴질 수 있다. ‘소리의 길이가 우리말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문법 교과서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말:’과 ‘한국말:’을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낱말의 모든 긴소리와 짧은소리를 정확하게 배워서 익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다.

학교 문법과 국립국어원이 만든 표준발음법 등은 일부 전문 어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지만, 실제 한국어를 사용하고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범위는 훨씬 많고 광대하며 그들 나름의 발음 규칙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어의 주인은 대중이고,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성이 있다. 그것은 인간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모국어 화자의 언어 능력은 언어학자나 문법학자가 발견하여 그려낸 그 그림자, 그 문법에 비하여 복잡하고 원초적이며 생명력이 넘친다. 한국어에 있는 모든 긴소리, 짧은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 세대는 과거의 세대에 비하여 말투 및 어휘에서 많은 것을 바꾸어 왔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말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결코 옳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발음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학생들이 배워온 것이다. 몇몇 전문적인 어학자들의 생각을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의 내재적 문법 지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긴소리, 짧은소리에 대한 인식을 성찰하게 하는 것은 좋은 교육이다. 여기서도 긴소리, 짧은소리가 비교적 명확히 지켜지고 있는 말소리를 찾고, 그것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그 경험담을 나누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목소리의 근원인 성대가 어디에 있는가 보지 않고도 느낄 수 있다.

목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는 성대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또 사진 같은 것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평소 그 성대를 자기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보다는 못할 것이다. 평소에 자기가 성대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느껴보게 한다면 자기 신체의 신비에 대해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성대를 느껴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방법으로, 팔굽혀 펴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가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때 자기도 모르게 목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게 된다.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 때 그 소리가 나는 부분이 성대이다. 성대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슴에 찬 숨이 빠지지 않게 꼭 닫아 두는 역할을 한다. 힘을 줄 때 나는 ‘꽝’하는 소리는 성대가 숨이 나가지 못하게 막느라고 쾅겨 있을 때 바람이 살짝 빠지면서 나는 소리이다. 말할 때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들린다. 이와 같이 성대는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허파 속에 공기를 가두어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성대를 느껴보는 첫째 방법은 무거운 물건을 들 때와 같이 몸에 힘을 주고 ‘꽝’하는 소리를 내어보면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의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방법으로, 사례들린 경험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몹시 괴로운 경험인데, 사례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성대이다. 성대는 허파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허파가 거부하는 이물질이나 가래를 밖으로 뱉어 낸다. 사례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대를 느껴본 것이다.

셋째, 호흡을 할 때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성대이다.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어 보면 목 어디선가 닫히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그 부분이 성대이다. 코를 숨을 쉬다가 갑자기 멈추어 보라. 목구멍 어디선가 닫히는 느낌이 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성대이다.

얇은 종이(휴지)로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의 차이 알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예사소리보다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인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조음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른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못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얇은 종이의 양쪽 끝을 들고 얼굴 위까지 올려들어 종이의 밑 부분이 입의 바로 앞에 오도록 한다. 그 다음 [ㄱ], [ㄲ], [ㅋ]를 발음해 보면 종이의 끝부분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게 된다. 종이는 얇을수록 좋으므로 곽에 든 휴지(티슈)를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ㄱ]과 [ㄲ]는 분명 다른 발음이지만 휴지가 움직이는 모양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로 보아 학습자는 [ㄱ]과 [ㄲ]는 배출하는 공기의 양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성대에 들어가는 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ㄱ]과 [ㅋ]는 휴지의 움직이는 모양에 큰 차이가 있다. [ㅋ]를 발음할 때 휴지가 훨씬 크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로써 [ㄱ]과 [ㅋ]의 발음의 차이는 공기 배출량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구개음 확인하기

구개음화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다. 학습자들 중에는 구개음화와 유기음화를 헷갈려 하기도 한다. 그것은 구개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탓으로 ‘ㄷ, ㅌ’의 음이 ‘ㅈ, ㅊ’음으로 바뀐다고 단순히 기억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구개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구강 내 어느 부분의 협착으로 나는 소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여기에 시험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사랑’, ‘중’, ‘천원’의 /ㅅ, ㅈ, ㅊ/를 발음하다가 입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숨만 거꾸로 들이마시면 시원한 부위가 느껴지게 된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원하다’, ‘무지’, ‘같이’의 /ㅅ, ㅈ, ㅊ/를 발음하다가 입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숨만 거꾸로 들이마시면 시원한 부위가 느껴진다. 이 시원한 부위가 바로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이다.

‘사랑’, ‘중’, ‘천원’의 /ㅅ, ㅈ, ㅊ/와 ‘시원하다’, ‘무지’, ‘같이’의 /ㅅ, ㅈ, ㅊ/를 비교해보면, 전자를 낼 때보다 후자를 낼 때 시원한 부위가 조금 더 넓고 그 위치도 조금 더 뒤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찰을 일으키는 부위가 다르다는 것은 시원한 부위가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구개음화되기 전의 /ㅅ, ㅈ, ㅊ/와 구개음화되고 난 후의 /ㅅ, ㅈ, ㅊ/의 음성학적인 변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나아가 /ㄷ, ㅌ/가 ‘ㅣ’모음 앞에서 구개음화한 발음이 왜 구개음 /ㅈ, ㅊ/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된다.

모음사각도 그리고 그대로 발음해 보기

교과서에 모음사각도가 나오는데 학습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그림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그려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는 훨씬 수월하다.

모음 사각도는 Daniel Jones가 그렸는데, 그것은 추상적으로 그려진 것으로 실제로 발음할 때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모음 사각도가 뇌에 의해 인식된 혀의 위치라면 실제 혀의 위치는 모음 사각도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모음 사각도를 따라 발음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음의 발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모음 사각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위 그림과 같이 ‘2:3:4’로 하여 그린다. ㉠에 오는 음은 평순, 고설, 전설 모음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음이며, ㉡에 오는 음은 평순도 원순도 아니지만 저설, 후설 모음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음이다. ㉢에 오는 음은 원순, 고설, 후설 모음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음이다. 점진적으로 본다면 ㉠에서 ㉢에 이르기까지 입술의 모양은 평평한 모양에서 둥근 모양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 ㉠에서 ㉢에 이르기까지 혀는 점차로 낮아지며, ㉢에서 ㉡에 이르기까지는 혀가 다시 높아진다. ㉠에서 출발할 때는 혀를 가장 앞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입술은 가장 평평하게 하며, ㉢까지는 입을 조금씩 벌리면서 혀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낮춘다. 그러다 다시 ㉢에서 ㉡까지는 혀의 앞뒤 위치는 그대로 둔 채로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서 혀의 높이만 조금씩 높여준다. 이 때 목청으로 소리를 내면서 하게 되면, 모음 ‘ㅣ’부터 ‘ㅓ’까지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그려보고 또 발음하여 봄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린 것을 보고 그대로

소리를 내어보게 되면, 소리도 우스꽝스럽고, 표정들도 재미있어서 상당히 유쾌한 수업 상황이 유도된다. 매우 발달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려진 모음 사각도는 세계 각국 언어의 모음을 측정할 수 있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모음 사각도의 본 취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것이다.

‘보통이, 아버지, 톱’에 사용된 ‘ㅂ’의 소리에 대하여 다음 순서를 따라 설명하여 보자.

- (1) 이들 ‘ㅂ’이 발음될 때 조음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 (2) 각 ‘ㅂ’의 발음상의 차이점을 말하여 보라.
- (3) 이를 음성과 음운의 관점에서 각각 정리하여 보라.

세 ‘ㅂ’ 모두 입술 소리에서 나는 파열음이다. ‘보통이, 아버지’의 ‘ㅂ’은 입술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이지만 ‘톱’의 ‘ㅂ’은 터지지 않고 막혀서 나는 소리이다.

그리고 느끼기 힘들겠지만, ‘보통이’의 ‘ㅂ’에 비해 ‘아버지’의 ‘ㅂ’은 모음 사이에 있으면서 모음의 영향으로 성대가 울려서 나는 소리이다. 이처럼 각각의 ‘ㅂ’은 음성학적으로 다른 소리이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다른 소리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이 모든 소리를 같은 자리에서 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통이’의 ‘ㅂ’을 ‘톱’의 ‘ㅂ’으로 발음하기는 아예 불가능하고, ‘아버지’의 ‘ㅂ’으로 발음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다른 단어로 듣지는 않는다. 즉 소리는 인식되지만 서로 다른 ‘ㅂ’ 소리가 같은 자리에 쓰였을 때에 다른 단어가 되지 못하므로 ‘ㅂ’의 이 모든 소리는 음소 /ㅂ/의 변이음이다.

4. 다음 단어들을 긴 소리로 발음할 때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 사전을 찾아 조사하여 보자.

‘되다, 같다, 묻다, 걷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되다(이루어지다) 같다(바꾸다) 묻다(파묻다) 걷다(치우다)
 되:다(물기가 적다) 같:다(날카롭게 하다) 문:다(질문하다) 걷:다(걸음을 걷다)

5. ‘없다’와 ‘업다’의 ‘ㅣ’ 발음에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여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여 보자.

‘없다’는 [업:파]로 발음하고 ‘업다’는 [업따]로 발음한다. 한편 억양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억양과 길이의 차이로 소리의 깊이에도 다소간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두 ‘ㅣ’를 다른 음소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발음은 /키/나 /히/ 발음과는 달리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구별된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예컨대 /업다/의 경우에는 /없다/보다는 모음의 발음이 조금 더 딱딱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음도 낮게 들린다.

이 경우에 대하여 학생들의 적절한 자기 해설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6. ‘ㄱ, ㅋ, ㆁ, ㅇ’이 발음되는 위치를 찾아내어 보고, 자기가 찾은 바를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하여 보자.

‘ㄱ, ㅋ, ㆁ, ㅇ’은 발음되는 위치가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ㄱ’이 비음화하면 ‘ㅇ’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는 학생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조음점을 찾으려면 이것들이 받침으로 사용되는 음절을 발음해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학생 스스로 찾도록 교사는 안내만 하면 된다. 이러한 과제를 통하여 학생들은 음운론의 이치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①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음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차 소리, 피리 소리
- 아기의 울음소리, 가수의 노랫소리, 아버지의 고함 소리
- 음성이 참 예쁘다. 그 가수의 음성은 저음이다.

* ‘음성’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을 바꾸어 넣어 보자.

- 바람 음성, 물 음성, 새 음성, 차 음성, 피리 음성
- 아기의 울음 음성, 가수의 노래 음성, 아버지의 고함음성
- 소리가 참 예쁘다, 그 가수의 소리는 저음이다

* 바꾸어 넣었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골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음성’과 ‘소리’의 차이를 설명하여 보자.

‘음성’과 ‘소리’를 바꾸어 넣었을 때 위의 예 모두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가수의 소리는 저음이다.’는 경우에 따라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가수의 음성은 저음이다.’는 원래의 문장에서 ‘음성’은 ‘저음’과 호응하는 관계이므로 ‘말 소리’보다는 그 가수의 ‘목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소리’로 바꾼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음성이 참 예쁘다.’라는 문장의 경우 명확히 ‘소리가 참 예쁘다.’가 되면 문장의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색함이라기보다 ‘음성’보다 외연이 넓은 ‘소리’가 사용되어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달라지는 데서 비롯하는 이질감이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아버지의 고함 음성’의 경우, ‘음성’이라는 말뜻 때문에 낯설음이 느껴진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고함 소리’라는 표현이 워낙 굳어진 형태로 자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색함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음성’의 뜻이 ‘음운의 실현’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 ‘고함’이라는 단어에는 ‘소리’라는 표현이 ‘목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음성’보다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즉 ‘고함’은 ‘목소리’라기 보다는 ‘소리’에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아기 울음소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머지 ‘바람, 물, 새, 차, 피리’ 등은 ‘음성’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만 쓰이는 단어이므로 당연히 이상한 것일 뿐, 굳이 ‘음성’이 가진 어떤 음성학적인 특질이나 음운론적인 특질 때문에 이상한 것은 아니다.

본래 ‘음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발성 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라는 뜻이 있다. 그러나 음운론이나 음성학에서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로서 ‘음성’은 ‘사람이 발성 기관을 통해 내는 소리’ 중에서 언어음으로 사용되는 ‘소리’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다. 즉 음성이라고 해서 음운론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음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를 내는 기관도 발성 기관이며, 무의미하게 ‘아’하고 내는 소리도 발성 기관에서 내는 소리고, 울음소리도 발성 기관이 내는 소리이며, 고함 소리도 발성 기관이 내는 소리이지만, 이것은 음성학이나 음운론에서 볼 때 모두 ‘음향’에 불과하다. ‘음성’이 전문적인 의미로 한정되어 쓰일 때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언어음에 쓰이는 소리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만으로 ‘음성’이 올바른 뜻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 탐구 활동은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어려운 것이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①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소리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공기가 목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는 모음이다. 모음은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구분되고, 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도 구분된다. 한편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 음과 원순 모음으로 나눈다.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을 나누는 방법은 혀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입천장과 가장 가까워진 혀의 부분이 앞쪽(전설)에 있는지 뒤쪽(후설)에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앞쪽에 있으면 전설 모음이 되고 뒤쪽에 있으면 후설 모음이 된다.

지금 한국어의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비롯한 대다수 젊은 한국인들은 /기/와 /히/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니/와 /기/도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한편 모음은 자음과 달리 입안 어디에서 조음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음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음의 정확한 발음 상황을 깨닫는 이 활동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은 ‘공기가 목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모음’임을 아는 활동이므로, 주로 ‘자음’과 대조되는 ‘모음’의 특질을 깨닫는 쪽으로 활동을 유도하면 될 것이다. 물론 모음과 자음은 훨씬 정밀하게 정의될 수 있는 대상들이지만 고등학교 문법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①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다음 단어들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만드는 요소를 찾아보자.

한 언어에서 어떤 음이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할 때, 이 음을 음운(音韻)이라고 한다. 우리말에서 ‘불’, ‘뿔’은 다른 음들은 같은데 단지 초성에 /ㅂ/, /ㅃ/ 음 중 어느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어에서 /ㅂ/, /ㅃ/ 음은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음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우리가 ‘bus’를 [버스]라고 말하건 [뻬스]라고 말하건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ㅂ’, ‘ㅃ’의 경우 우리말에서는 의미를 변별하여 주는 기능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 * 굴, 꿀, 돌, 물, 불, 술, 줄, 풀 : ㄱ, ㄲ, ㄷ, ㅁ, ㅂ, ㅅ, ㅈ, ㅊ
- * 발, 벌, 볼, 불 : ㅌ, ㄴ, ㄷ, ㅌ
- * 박, 뵙, 반, 발, 밤, 방, 발 : ㄱ, ㄲ, ㄴ, ㄹ, ㅁ, ㅅ, ㅌ

이 부분을 이해시킬 때 문자와 소리, 즉 표기와 소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운은 표기와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대인들에게는 /히/와 /기/는 음운으로서의 점점 구별되지 않는 음으로 바뀌어 표기상으로도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없다’의 /기/와 ‘업다’의 /기/는 표기상으로는 동일하지만 발음에는 차이가 있다.

이 탐구 활동 중에서 ‘박’과 ‘뵙’은 소리로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사실 표기는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자의적인 표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표기가 나타내는 실제 소리를 찾도록 학생들의 활동을 촉구해야 한다. ‘박’과 ‘뵙’은 혼자 쓰일 때는 ‘ㄱ’과 ‘ㄲ’이 변별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로, 을’ 등이 올 경우에는 [바그로], [바글]; [바끄로], [바끌]과 같이 음절의 마지막 음이 살아나서 변별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이 탐구 활동을 할 때에는 표기만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순으로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자기가 평소 어떻게 발음하는지 회상하고 그대로 발음하여 보기〉
- 〈발음한 단어에서 서로 다른 부분 찾기〉
- 〈그 부분을 나타내는 표기 단위 찾기〉

이것이 무익한 것 같겠지만, 표기와 소리를 구별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순이다. 첫째 순서에서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자기가 평소 어떻게 발음하는지 회상하고 그대로 발음하여 보기’를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읽어 보기’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읽는 것보다는 회상하여 발음하여 보기를 추천하고자 한다. 표기는 모국어 화자가 저장하고 있는 음운 지식의 그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②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음성과 음운의 개념 및 그 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모둠별로 발표하여 보자.

물음 저는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나운서의 기본 자질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해서, 요즘은 특히 발음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커피’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 어떤 아나운서는 ‘커피’의 ‘피’를 [fi]로, 또 어떤 아나운서는 [phi]로 발음하더군요. 어떤 것이 맞나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녕하세요, 현아 양. 질문 고맙습니다. 이러한 혼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영어와 우리말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f/와 /ph/가 각각 다른 음운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riend'의 [f]를 [ph]로 발음하면 그쪽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f/와 /ph/는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달'을 [달]로 발음했을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므로 'coffee'를 영어로 발음할 때에는 [f]로 발음을 해야 하지만, 외래어 '커피'를 우리말로 발음할 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f]로 발음되는 음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에게 [ph]와 [f]는 동일한 /ㅍ/ 음운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뉴스에서 '커피'의 '피'를 발음할 때에는 우리 나라 말 체계에 따라 [phi]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외래어(外來語)와 외국어(外國語)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지만, 국어처럼 느껴지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외래어는 우리말처럼 느껴져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없는 말인 반면에 우리말에는 대체할 다른 표현이 없는 말이다. '버스, 라디오, 빵, 담배'와 같은 말이 그 예이다. 외국어는 '댄스, 레스토랑'과 같이 '춤, 식당(또는 양식당)'과 같은 대체할 우리말이 있는 경우로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 위의 경우에 보이는 단어 '커피'는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온 말이지만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말을 말한다. 우리말처럼 사용되므로 우리말의 음운 체계에 있는 말로 발음하면 된다. 음성으로서 [fi]와 [phi]는 분명히 다른 소리에 포함되지만 한국어에서는 음운으로 분립하지 않는다. 음운이라는 개념은 '한 언어'를 전제하는 개념이다. '한 언어'를 전제하지 않으면 '음운'은 성립되지 않는다. [fi]와 [phi]가 한국어에서 보이는 음성적 차이는 음성적 차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순치음으로 발음되는 [fi]를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때 굳이 발음하는 일도 없거니와 실제로 발음한다고 해도 양순음으로 발음하는 [phi]와 다른 소리라고 인식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phi]를 이상하게 발음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fi/와 /phi/는 음성적 차이는 음운적 차이의 가치를 갖는다. 명확히 그들에게 있어 /fi/와 /phi/는 전혀 다른 소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음성은 어떤 언어에나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별된 인식은 각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음운으로 나타난다.

① 국어의 단모음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위에 제시한 국어의 단모음 10개를 자신의 평소 발음대로 발음하여 보자.

학생들에게 평소 발음대로 발음하여 보라고 하면 /ㅏ/와 /ㅑ/가 구별되지 않을 것이고, /ㅓ/와 /ㅕ/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것이다. 경상 방언을 쓰는 학생이라면 /ㅓ/와 /ㅕ/가 잘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본문의 모음 시각도를 참조하여 다시 발음하여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여 보자.

- 그 동안 잘못 발음하여 온 모음은 무엇인가?

첫째, 잘못 발음하여 왔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이른바 '잘못된 발음'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ㅏ/와 /ㅑ/를 구별하여 발음하는 방법, /ㅓ/와 /ㅕ/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연습은 학생의 발음 교정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음성 지각을 민감하게 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잘못된 발음'의 '잘못된'이라는 말에 선악의 개념을 결부시켜 지도하는 것은 명확한 잘못이다.

'잘못된 발음'은 표준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잘못된'일 뿐이다. 표준어는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언어로서 그 생명력이 의심스러운 언어임에 반하여, 구체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방언은 살아있는 언어로서 생명력이 넘치는 언어이다. '덤덤한' 표준어의 관점에서 방언의 발음은 '잘못된 발음'처럼 들리겠지만, 방언의 그 '잘못된 발음'은 다른 요소의 보충으로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표준어를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방언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하는 것은 언어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언어 가치에 대하여 깨닫고 존중하여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은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로 보아 언어의 역동성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사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그 동안 잘못 발음하여 온 모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되면 '수정하여 주고자' 하는 태도가 저절로 일어나기 마련인데, 학생들의 발음을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것도 언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학생들이 모음의 발음을 익혀 온 과정 속에는 다양한 인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이 있으며, 학생들의 발음은 사실상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언어의 주인인 언중들의 실제 발음이 학생들의 발음에 녹아 있는 것이다. 모음의 발음은 비어나 은어와 같이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발음하려고 해서 발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겠다.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은 지금까지의 국어 현상을 토대로 규정한 '표준어'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므로, 사실 그 '잘못된'은 언어 변화의 개신 요소일 확률이 많다. 언어의 변화는 단순한 규범이나 교육으로 잡기가 힘들다. 모음과 같은 음운의 변화는 이미 학생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기 이전에 그들의 주변인들이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었거나 '잘못된' 발음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잘못된' 발음을 통하여 언어의 역사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 여러 모음 중에서 특히 어떤 모음의 발음이 어려운가?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시피, /ㅏ/와 /ㅑ/의 구별, 단모음으로서 /ㅓ/와 /ㅕ/의 발음이 어려울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발음을 하는 요령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② 위에 제시된 모음들에 대하여 다음 자료들을 보면서 탐구하여 보자.

- 뇌, 외갓집, 괴롭다, 무죄
- 위, 쥐, 자취, 말귀

* 위 소리들을 발음하여 보면서 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자.

'위 소리들을 발음하여' 보라고 하였지만, 위의 것은 표기이며 '소리'는 아니다. 위 표기가 나타내는 단어를 발음하여 보면서 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자고 해야 맞는 말이다. 위 문제는 '주의 깊게' 자신의 발음과 입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보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음을 눈여겨보고자 할 때 평상시와 같은 자연스러운 발음을 못한다는 사실이다. '괴롭다'의 '괴'를 평상시에는 정확하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다가도 푹푹하게 발음하여 자신의 입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들면, 이상하게 '꽤롭다'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음성학적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찰이 그리 쉽게 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안내할 때 이러한 것에 주의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상의 것으로 발음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 위 소리들은 단모음인지 이중 모음인지 판단하여 보자.

위 소리들은 당연히 단모음이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발음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억지스러운 듯한(학생들 입장에서는) /ㅓ/나 /ㅕ/ 발음을 고수하려 하기보다는 이중모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③ 국어의 이중 모음에 대하여 탐구하여 보자.

의사들의 의복 적십자사 창설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 위에서 'ㄱ'이 사용된 단어들을 다음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여 보고, 서로 비교하여 보자.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예]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허비] 우리의[우리

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문제에 없지만, 다만 3도 ‘ㄱ’의 발음에 관한 규정이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은 []로 발음한다. 널리리 녅큼 무늬 띄어쓰기 씩어 띄어희어 희뽀다 희 망 유희 탐구 활동에서 보이고 있는 예들은 다만 4에만 해당한다. 다만 4에 따르면 탐구 활동의 예들은 두 가지로 발음될 수 있다. 일단 원칙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의사드레 의복], [적씩짜사 창서리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그러나 허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음할 수도 있다.

의사드레 의복, [적씩짜사 창서레 의의]/[적씩짜사 창서레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민주주의의 의이]/[민주주의의 의이]/[민주주의에 의이]

④ 국어의 이중 모음을 조사하여 보자.

*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 ‘ㄱ/ㄷ’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독특한 이중 모음으로 ‘ㅣ’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② 영어의 자음 [g], [d], [b]를 위의 표에 넣으려면 위의 표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여 보자.

영어의 자음 [g], [d], [b]가 어떤 발음인지를 학생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g], [d], [b]는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발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약속된 표기 형식이다. 그러므로 이것만 보고 학생들이 발음을 떠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어느 자리에서 이러한 발음이 나는지를 이야기하여 주어야 한다.

한국어에서 어느 때에 [g], [d], [b]가 발음되는지를 예를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울림소리 사이에 /ㄱ, ㄷ, ㅂ/가 위치해 있는 단어의 예를 떠올려보게 한다.

→ 구경, 달구지, 돌고래 ; 담당, 담대하다, 안동포 ; 송별사, 본부, 발붙이다.

위의 예를 가지고 어두 초성에 오는 /ㄱ, ㄷ, ㅂ/의 소리와 어중 초성에 오는 /ㄱ, ㄷ, ㅂ/를 비교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둘 사이의 차이를 가늠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 어두 초성에 오는 /ㄱ, ㄷ, ㅂ/는 [k], [t], [p]에 가까운 소리이며 어중 초성에 오는 /ㄱ, ㄷ, ㅂ/는 [g], [d], [b]에 가까운 소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인 학생들의 생각 속에 [g], [d], [b]가 음운으로 분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다음, 무성음과 유성음이라는 용어를 가르쳐주고 61쪽의 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겠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①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나, 눈물이나?에서 길게 발음하여야 하는 ‘눈’과 짧게 발음하여야 하는 ‘눈’을 가려 내어 보자. 활동을 하기 전에 학생들의 평소 발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의 평소 발음을 상기하기 전까지는 탐구 문제를 읽어서는 안 된다. 일단 문제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발음했단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4) 소리의 길이를 학습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나, 눈물이나?’라는 대사를 내뱉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사람의 얼굴에 있는 ‘눈’이 들어간 문장을 발화하고 나면, 자기가 말한 그 문장을 다시 인식하며 말하게 해본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은 스스로의 발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의 발음을 점검한 후에 탐구 문제에 있는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나, 눈물이나?’를 읽도록 하면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수업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짧게, 인간의 얼굴에 있는 눈

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식의 규범적 양상을 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지식은 외워지지도 않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되므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다.

자연스럽게 눈[눈]과 눈[눈]이 들어간 문장을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컷의 만화를 준비할 수도 있고,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또는 빈칸을 마련한 문장, 예컨대, 눈[눈]과 눈[눈]을 그린 낱장 그림을 제시한 후 ‘()에 ()이 들어가니,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이나, 눈물이나?’ 같은 것을 제시하고 빈칸을 메우게 하는 것도 좋을 활동이 될 것이다. 기교야 어찌되었든 그것은 교사의 재량에 있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문제를 읽기 전에 자기 자신의 평소 발음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를 읽고 나면, 학생들은 자신의 평소 발음을 회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란 너무나 인간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이 그저 자연스럽게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면 사라져 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② 다음 두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발음하여 보자.

* 어머니께서 옷에 묻은 솔잎을 솔로 털어 주셨습니다.

이 경우도 ‘바르게’ 발음하여 보자고 하면서 문장부터 제시해서는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수업이 되기 힘들다. 언어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평소 자기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자기의 발음이 떠오르지 않으면, 설사 그 학생이 표준적인 발음, 또는 올바른 발음으로 자신을 교정하고 싶어도 그에 대비되는 지식이 없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헛갈리는 상황만 지속될 뿐이다. 의미 있는 학습은 학생의 이전 상태에 대한 통찰이 선행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위 문장의 학습도 마찬가지로 낱장 그림 같은 것을 제시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발음하게 하여 봄으로써 학생들이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께서 도자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굽-’의 경우에는 장단음을 가진 다른 단어에 비하여 구별이 용이한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평소 발음을 떠올리기 전에 이 문장을 읽혀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무엇을 붙에 구울 때의 ‘굽다’와 물건 따위가 휘어진 것을 가리키는 말인 ‘굽다’는 장단이 짧아질 경우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맥락이 만들어진다.

“고기를 [굽따]예요, 아니면 [굽:따]예요?”하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덧붙여 표준발음 규정을 소개하여 알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표준 발음법’ 3장 소리의 길이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와, 지어→져,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 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쏘-살-같이, 작은-아버지

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를 음절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자.

영어 단어 'milk'를 우리는 [밀크]라고 발음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 [밀크]라고 발음할 경우, 우유를 사 먹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milk'를 [밀크]라고 발음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우유를 사 먹기란 불가능한 이유는 음절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에서 'milk'는 한 음절인데, 한국어에서 그것은 2음절 [밀크]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사람들은 'milk'를 발음할 때 마지막에 'ㅡ'를 첨가해서 [밀크]라고 발음하는 데 그것이 영어권의 사람들과 'milk'를 발음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밀크]라고 발음한다고 해서 우유를 사 먹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한다. 러시아어와 같이 한 단어 안에서까지 성조가 의미 변별에 큰 역할을 하는 언어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라면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못 사먹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끝에 삽입된 [ㅡ]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milk'에서 중요한 발음이 'k'일 수도 있지만 'l' 발음이 가지는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어에서 /ㄹ/ 하나로 묶이는 소리가 미국 영어에서는 /r/ 과 /l/로 나뉘어 있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가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이 조언을 따르기로 한다.

▶ 활동 목표 및 취지

여기에서는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발음 중,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h/와 /k/의 혼동이나 지나친 된소리화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정확한 발음을 익히도록 한다.

▶ 지도 방법

앞서 (2)모음, (3) 자음 단원에서 살펴본 기초적인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의 발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들려주고 이를 반복적으로 모방하고 연습하는 활동을 통하여 정확한 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다음 자료를 보고 현대 국어의 발음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개 : 게, 내 : 네, 때 : 때 매 : 매, 배 : 배, 새 : 세, 재 : 제

1) 개 : 게

- 개 【명사】

사람을 잘 따라서 귀염을 받고 냄새를 잘 맡고 귀가 매우 밝아 도둑을 쫓거나 사냥을 도우며, '멍멍'하고 짖는 짐짐승.

[예문]어렸을 때 살던 고향 시골에는 낫선 사람 하나만 보여도 온 동네 개가 한꺼번에 짖곤 했다.

개 같다 사람답지 못하다. 아무 가치도 없다.

[예문]개 같은 놈이네,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놈이 어딴냐? 에이구, 내 개 같은 인생, 어서 죽어야지.

- 게 【명사】

큰 집게발 두 개를 합하여 열 개의 발이 있어 옆으로 기어다니며 온 몸이 단단한 껍질로 싸여 있는, 물에 사는 동물.

[예문]게는 집게발로 교신하고, 벌은 춤을 추어 꿀이 있는 곳을 알린다.

2) 내 : 네

- 내 【대명사】

[주격 조사 '가' 앞에 쓰이는] 나.

예문]내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당신은 짐작이 갈 것이요./내가 묻는 말에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 네1 【대명사】

주격 조사 '가'앞에 쓰이는 '너'의 특수한 꼴.

예문]장남인 네가 믿지 않으니까 두 동생도 믿질 않아./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너를 믿고 따라갈 거야.

- 네2 【대명사】

'너희'의 준말.

예문]사람을 죽인 네 녀석들이 언젠가는 천벌을 받을 날이 있을 거다./네 이 놈, 여기 있었구나.

3) 때 : 때

- 때1 【명사】

[I]

1.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적당한 시기.

[예문]이제는 때가 왔다./사대문은 때가 되면 철통 같이 닫혔다.

2. 계절이나 절기.

[예문]때는 마침 추석을 앞둔 한가위 즈음이었다./때는 겨울이었으니, 아무것도 없이 양식 한 자루만 달랑 남아 있었다.

[II]

['~ 때'의 꼴로, 의존적으로 쓰이어]

1.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의 순간이나 동안.

ㄱ. 사건이 일어난 순간.

[예문]그녀는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4킬로그램이나 줄어 있었다./이게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고향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다는 그 상자다.

ㄴ. 사건이나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예문]저희 아버님은 자유당 때 꽤 높은 관직에 계셨습니다./너는 어렸을 때 겁쟁이었다고 남 앞에서 놀려 대면 늘 화를 냈었지.

2.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나타냄.

[예문]경칩은 정월에 들기도 하지만 절후로 볼 때 2월이다./교역 조건도 1972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75년에는 88, 1983년에는 61로 악화되었다.

- 때2 【명사】

몸, 옷, 물건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

예문]머리 밑에 덕지덕지 앉은 비듬과 때가 등겨 같이 양 어깨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바지는 구겨지고 얼굴은 때가 묻어 있었다.

때 빼고 광내다 몸치장을 하고 멧을 내다.

[예문]김 과장은 오늘 데이트가 있다고 때 빼고 광내고 회사에 출근했다./때 빼고 광낸 것을 보니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지?

때(가) 묻다 (신선한 맛이 없이) 닳고 닳다.

[예문]신인다운 신선한 느낌은 사라지고 때가 묻은 늙은 정치인의 모습만을 그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

때가 빠지다 어색하거나 촌스러운 모습이 없어지다.

[예문]미끈하게 때가 빠지고 제법 뭐 하는 사람 같이 된 형에 비하여 영만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4) 매 : 매

- 매1 【명사】

1. 벌을 주기 위하여 사람이나 짐승을 때릴 때 쓰는 막대기나 몽둥이, 회초리.

[예문]그 사이 담임 선생님의 손에 들린 매는 반 토막으로 줄어 있었으나 매질은 멈춰지지 않았다.

2. 별로 사람을 때리는 짓.

[예문]그 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 매는 한 사람 앞에 다섯 대씩이었다.

매 타작 심한 매질.

[예문]날 정주 바다에다 얹어 놓고 매 타작을 하고 야료를 부리다가 제 집구석으로 돌아갔지요.

매를 들다 때리다.

[예문]누구나 그렇겠지만, 아이에게 매를 들고 난 후 나는 한동안 후회했었다.

- 매2 【명사】

작은 짐승과 새를 잡아먹고 살며,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생긴, 검은 갈색의 사나운 새.

[예문]매를 이용한 꿩 사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두루 행하여 왔다.

- 매3(梅) 【명사】

매화, 또는 매화나무.

[예문]화선지에 매를 치고 있으면 세상 잡사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

5) 배 : 배

- 배1 【명사】

[I]

1.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가슴 아래에서 다리 위까지의 부분.

[예문]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나는 해산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신호를 본 소대원들이 일제히 배를 깔고 엎드렸다.

2.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내장이 있는 곳.

[예문]그는 라면으로 주린 배를 채우면서 사무실에다 침대를 놓고 자곤 했다.

[II]

[의존적으로 쓰이어] 짐승이 새끼를 낳거나 알을 까거나 하는 횟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냄.

[예문]백 마리를 육박하는 돼지는 매달 새끼를 몇 배씩 낳았다.

배(가) 다르다 (한 아버지 밑의 자식들 사이에) 낳은 어머니가 서로 다르다.

[예문]그는 그의 형과 배가 다른 사이였다./배 다른 형제끼리 사이가 좋을 수가 있나?/내가 아무리 배 다른 형제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우리 형제 중에 배 다른 사람이 있단니 믿기지가 않았다.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것에) 심술이 나고 속이 상하다.

[예문]몰라보게 출세한 그 친구를 만나 보면 꽤 배가 아프겠지?/나와 경쟁하던 친구가 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배(를) 불리다/채우다 자기 욕심을 채우다.

[예문]농어민에게 빚을 주고 그 이자로 배를 불리고 있던 채권자들로서는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단장은 절약된 쌀을 내다 팔아 배를 채우는 것이었다.

배가 남산만하다

1. 살이 찌서 배가 많이 나온다.

[예문]사장은 대머리에 배가 남산만했다.

2. 임신을 하여 배가 몹시 나온다.

[예문]아내는 만삭이 되어 배가 남산만한데도 불구하고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배가 맞다

1. [속된말로] 남녀가 남모르게 서로 정을 통하다.

[예문]얼굴이 반반하니까, 돈 많은 주인집 사내놈과 은밀히 배가 맞아 뒷구멍으로 돈을 들킴뽀 타내는지 알 게 뭐야.

2. [속된말로] 땃땃하지 못한 일을 하는 데에 서로 뜻이 통하다.

[예문]혹시 다른 녀석과 배가 맞아 놀아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야./헛, 어떤 놈이랑 배가 맞은 것이지.

배가 부르다

1. 형편이 넉넉하여 아쉬울 것이 없다.

[예문]사람들은 배가 좀 부른 다음에는 거만해지기 쉽다./배 부른 소리 좀 작작 해라.

2. (무엇의 가운데 부분이) 불룩하게 나오다.

[예문]그의 앞에는 장사치임에 틀림없는 아낙네들이 배 부른 광목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서 있었다.

배를 잡다 몹시 웃다.

[예문]그의 열간이 연기는 사람들의 배를 잡게 했다./아이의 철없는 대답에 우리 모두 배를 잡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주된 일보다 그것에 딸린 일에 드는 돈이나 노력이 더 많다.

[예문]완벽한 냉동 장치를 갖추자니 배보다 배꼽이 클 것 같아 아주 난처한 상황이야.

- 배2 【명사】

사람이나 물건을 신고 물 위를 떠다니는 탈것.

[예문]섬에는 일 주일에 한 번씩 배가 들어온다./항구에는 커다란 배들이 정박해 있다.

- 배3 【명사】

즙이 많고 시원한 단 맛이 나는, 가을에 나는 과일.

[예문]과일 중에서도 배는 우리 나라에서 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

- 배4(胚) 【명사】

1. 식물의 씨에서, 자라 싹눈이 되는 부분.

[예문]보리는 배에서 싹이 터서 보리 씨의 끝에 그 싹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

2. 동물의 생식 세포가 수정되어 태나 알이 된 후부터 태어나기 전까지의 단계.

[예문]배가 자라서 병아리가 제대로 모양을 갖춘 개체가 되면, 그 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

배5(倍)[배:] 【명사】

[I]

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 수량.

[예문]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고 고통을 나누어 가지면 반으로 준다는 속담이 있다.

[II]

[의존적으로 쓰이어] 같은 수량을 몇 번 합친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나타냄.

[예문]과거에 비해서 이혼율이 몇 배가 늘었다.

6) 새 : 새

- 새1[새:] 【명사】

대개 깃털과 날개가 있어 날 수 있고 고운 소리를 내는 더운 피를 가진 동물.

[예문]언제 날아 와 있었는지 밭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 갔다./산장의 뜰에는 눈부신 햇살이 가득 차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예문]그 일은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히 처리해야 한다.

- 새2 【명사】

[주로 의존적으로 쓰이어] 사이. 틈.

[예문]숨어서 하는 한마디 말도 하룻밤 새 읍내에 파다하게 퍼지는 시골이야./잠든 새 비가 그쳤는지 거짓말처럼 하늘엔 별까지 떠 있었다.

－ 세1(勢)[세:] 【명사】

(주로 정치나 경제의) 세력. 기운. 힘.

[예문]당내 구조로 미루어, 재야의 세를 업는 쪽이 후보 경선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우리 면이 아직도 봉화군에서 중심적 세를 유지하는 것도 금정 광산의 영화에 힘입은 바 크다.

－ 세2(貰)[세:] 【명사】

건물이나 방 따위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 또는 그러한 돈.

[예문]철거 건물주는 세를 들어 살던 사람들에게 먼저 생계비를 지급한 후 철거를 시작했어야 마땅했다.

세를 내다 돈을 주고 빌리다.

[예문]그네들은 방을 한 칸 세를 내어 오밀조밀하게 꾸며 놓고 새 살림을 시작했다./여보, 우리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세를 내서 장사를 하며 지내는 게 어때요?

－ 세3(稅)[세:] 【명사】

‘조세’의 준말.

[예문]정부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불로 소득은 중과하며,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성 비율을 적절히 재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7) 재 : 재

－ 재1 【명사】

불에 타 타고 남은 것.

[예문]생솔에서 나오는 송진과 습기와 그을음과 재가 매캐하게 퍼진다./불에 타다 남은 재는 이내 바람에 날려가 버렸다.

－재2 【명사】

다닐 만한 길이 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예문]읍에서 ‘박골’까지는 20리 길, 그 중도에는 꽤나 가파른 재가 버티고 있다.

－ 재3(在)[재:] 【명사】

(돈이나 물건 등의) 팔거나 쓰고 남은 나머지.

[예문]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기는 방법으로 재가 나게 하라.

－ 재4(災) 【명사】

재앙과 액.

[예문]그는 아무리 엄청난 기쁨이나 재 같은 것이 코앞에 들이닥쳐도 쉽게 동요해서 곧이곧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성격이 아니다.

－ 재5(財) 【명사】

물질적인 재산. 재물.

[예문]요즘 세대 사람들에게는 재는 흔하나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는 드물다./현대인은 재의 가치에만 끌리고 지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모른다.

－ 재6(齋) 【명사】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부처에게 드리는 공양.

[예문]이번 보름은 명절이라 그믐과 초하루 겹쳐서 절에서 큰 재가 올려집니다.

－ 제1(祭)[제:] 【명사】

신령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

[예문]매년 조기잡이 철이 시작되기 전 봄과 초가을에 섬사람들은 너른 잔디밭에 모여 놀며 성황당에 제를 올린다.

－ 제2(劑) 【의존명사】

탕약 스무 첩, 또는 그만한 분량으로 지은 환약을 세는 단위를 나타냄.

[예문]날이 밝으면 의사를 부르든지, 한약이나 한 제 지으러 보낼게요.

－ 제3 【대명사】

‘저기’의 준말.

[예문]에서 펄떡, 제서 펄떡 놀아도 양수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라는 의사의 말만 곧이듣고 있었다./봄치녀 제 오시네.

－ 제4 【대명사】

1. (듣는 사람을 대우하여 ‘나’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저’가 조사 ‘가’ 앞에서 쓰이는 꼴. ‘내’의 뜻.

[예문]이 근처 삼십 리 안팎에 있는 동네라면 제가 얼추 다 아니까요./그래서 친구 몇 명을 제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 행동이나 이야기의 주인을 다시 되받아서 가리키는 말인 ‘저’가 조사 ‘가’와 연결되는 꼴. ‘자기’의 뜻.

[예문] 수빈이는 어릴 적부터 제가 내던져 버린 장난감을 내가 주워서 길들이고 나면 다시 탐내는 고약한 버릇이 있었다.

*** 위 단어들을 정확하여 발음하여 보자. 친구들의 발음도 들어보고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지 살펴보자.**

☆ ‘ㄱ’은 전설모음 중 저모음, ‘ㄱ’은 전설모음 중 중모음으로 그 구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하지만 저모음인 ‘ㄱ’은 혀가 낮으면서 입이 더 벌어진다고 본다. 한편으로 ‘ㄱ’을 발음할 때, ‘ㄱ’보다 입을 더 닫고 센입천장과 앞 혀의 간격을 좁혀 발음한다.

→ 이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센입천장’이 어디를 말하는지 학생 스스로 찾아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과 혀의 간격을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근육도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설명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센입천장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개음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러 번 소개하였다.

여기에 나온 단어 ‘개:개, 내:네, 때:때, 매:매, 배:배, 새:새, 재:제’는 /ㄱ/와 /ㄱ/의 차이로 나뉘는 의미가 분화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발음으로 이들의 의미가 분화되는 것 같지만, 이들 단어가 가지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일은 좀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발음 때문에 의미가 분화되기도 하지만 그 단어가 사용되는 문장 맥락이나 상황 맥락에 따라 분화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다만 ‘내:네’의 경우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아주 혼동되기 쉬운 발음이다. 요즘에는 ‘네’가 사라지고 ‘니, 너’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이 단어들은 문장 맥락이나 상황 맥락으로 잘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ㄱ’과 ‘ㄱ’을 분간하지 않으면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것처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올바른 발음은 중요하지만,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 사실을 최소화하여 현실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용자를 몰아붙이는 태도는 이 활동을 할 때에 견제해야 할 것이다.

② 다음 자료를 보고 국어 자음의 발음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감쪽같이, 거꾸로, 거리낌, 고가 도로, 곱살끼다, 곱감, 교과서, 김밥, 땅거미(黃昏), 번데기, 새 차, 속맥, 자투리, 작은형, 조금

* 위 단어들을 각자 발음하여 보고, 친구들과 그 발음을 비교하여 보자.

* 위 단어들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처럼 틀리게 발음하는 예를 모둠별로 더 찾아보자.

☆ 지나친 된소리 발음 추세와 바른 발음 익히기 : 주어진 단어들은 [감쪽까지, 거꾸로, 거리낌, 고가 도로, 곱살끼다, 곱감, 교과서, 김밥, 땅거미, 번데기, 새 차, 송맥, 자투리, 자근형, 조금] 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발음이다. 감쪽까지, 거꾸로, 거리낌, 고가 도로, 곱살끼다, 곱감, 교과서, 김밥, 땅거미, 번데기, 새 차, 송맥, 자투리, 자근형, 조금] 과 같이 발음하는 것은 표준발음이 아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한다. 그 태도에

따라 그 말을 강조하게 되고 그래서 강세를 주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경상 방언에서 이런 발음을 많이 보는데, 과자를 [짜자] 또는 [까자]로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까짜 [까짜], 집게 [집게], 가득 [까득], 돼지 [돼지], 새끼 [새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음운의 발음만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상 방언의 성조와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 방언에서 초성의 평폐쇄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것은 성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언어 구조에서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공명음[sonorant]**

C.J. Hockett(1955)에서 자음음소를 둘로 대별하여 저해음[obstruent]과 공명음[sonorant]으로 분류한 일이 있다. 저해음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을 총칭하는 말이고, 공명음은 비음, 유음, 전이음(반모음)을 총칭하는 말이다. 저해음은 성대 울림에 따른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있으나 공명음 사이에는 그런 대립이 없다.

◆ **단음[phone]**

단음은 말소리의 연속체를 청각적인 인상과 조음동작을 바탕으로 하여 분절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작은 음성 단위를 지칭한다. 단음은 ‘음성학적 표현 단위’라 할 수 있고, 음운론적 견지에서 볼 때, 음운 단위인 음소의 ‘물리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음소의 음성적 변이형인 이음에 해당된다. 음운론 학자들은 흔히 단음과 음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단음은 [] 안에, 음소는 / / 안에 표기한다. 단음과 음소의 구분은 아주 중요하다. 이들의 이론적 차이는 추상성이 문제가 된다. 단음은 음소보다 덜 추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음은 일반 언어에서 추상된 것이고 음소는 특정 언어에서 추상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단음에 기반을 둔 기호는 국제적인 데 비하여 음소에 기반을 둔 기호는 특정 언어나 방언의 기술을 위해 적당하다.

◆ **모음[vowel]**

혀파에서 나오는 숨이 도중에 막힘이나 좁혀짐으로써 소음을 내는 일이 없이 조음되는 음을 모음이라고 한다. 보통 자음보다 소리의 울림이 크며 음절의 마루를 이루어 음절주음으로 작용한다. 조음의 구성이 일정하여 음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단모음, 모음이 2개, 3개 결합한 음을 각각 이중모음, 삼중모음이라 한다.

◆ **음성학[phonetics]**

음성학은 음성을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언어학의 한 분야에 속하지만, 사실 언어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면도 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 의해서 연구대상과 분야가 결정된다.

첫째, 말소리 또는 말소리의 연쇄를 어떻게 발음하고 지각하는가?

둘째, 말소리 또는 말소리의 연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언어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말소리 또는 말소리의 연쇄를 어떻게 조직하고 사용하는가? 개별 언어의 언어체계에서는 어떠한가?

◆ **음소[phoneme]**

어떠한 언어에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의미의 구별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변별적인 음의 최소단위를 말한다. 미국의 구조언어학에서는 음소를 분절음소와 초분절음소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모음과 자음을 포함하며, 후자는 분절음에 수반되는 강세, 억양, 성조, 연접 등을 포함한다. 국어에서 사용되는 음운이란 용어의 경우, 허용(1993)과 같이 음소와 운소를 함께 이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때 음소는 분절음소를, 운소는 초분절음소를 가리킨다.

◆ **음운론[phonology]**

시대와 학파에 따라 가리키는 내용이 같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언어의 음운 발달의 역사적 연구를 가리키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음성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음성학이 음성의 생리적,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라면 음운론은 음성의 체계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 **음절[syllable]**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된 하나의 소리의 울림마루이며 음운단위이다. 음절을 구성하는 분절음들 중 소리의 울림이 가장 큰 분절음이 음절주음을 이룬다. 음절주음에 해당하는 분절음은 대부분의 경우 모음이고, 때로는 공명음이 될 수도 있다. 한국어의 경우에 공명음이 음절주음이 되는 때는 없는 것 같다.

◆ **이음(변이음)[allophone]**

구조언어학의 용어로서 하나의 음소의 변이형이며 하위구성음이다. 이음은 위치에 의해 조건지워지기 때문에 조건 변이음 또는 위치 변이음이라고도 한다. 또, 자유변이음이 되기도 한다. 형태소에는 이형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자음**

공기의 흐름이 구강 내에서 장애를 받아 나는 음,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형성할 수 없는 음절에 딸린 음이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 [l], [m], [n], [r] 등은 음절의 핵을 이루기도 한다. 이런 자음을 특별히 공명음[sonorant]라고도 한다.

◆ **형성음[formant]**

말소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혀파에서 올라오는 공기 에너지가 성대에 의해 소리의 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아직 말소리가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마치 클라리넷의 끝 리드 부분만을 따로 떼 내어 불 때처럼 무수히 많은 단순음의 집합으로서 깨지는 듯한 소리를 낸다. 그런데 우리의 발성기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공명체 구실을 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모든 공명체는 자체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고유진동수에 일치하는 외부음에 대해서만 공명하게 된다. 여러 음을 조음하기 위해서는 발성기관이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은 바꿔 말해 공명체의 모양이 달라진 것이다. 말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음향분광사진기(스펙트로그래프)에 소리를 넣어 기록시켜 보면 유난히 진한 가로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해당 진동수 근처에 소리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부분을 형성음이라고 한다.

교과서는 ‘1. 음운과 음운체계에서’ 음성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그 뒤를 바로 이어서 ‘2. 음운의 변동’을 다루고 있다. 그 도입부는 다음과 같다.

국어에서는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꽃’이라는 형태소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ㄷ’ 소리를 내지 않고 이를 ‘ㄷ’ 소리로 바꾸어 [꼷]이라고 발음하고, 그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오면 [꼬출]처럼 ‘ㄷ’ 소리를 내는가 하면, 뒤에 ‘만’이라는 조사가 오면 ‘꽃만(→꼷만→꼷만)’에서 보듯이 [꼷]으로 발음한다.(교과서 65쪽)

교과서에서 인용한 위 문장에서 ‘음운’, ‘조건’이라는 말이 다 어렵다. ‘음운’은 이미 익혔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대해서는 해설이 필요하다. 음운론에서 ‘조건’이란 환경을 말한다. 어떤 ‘음운’이 음절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즉 음절의 가운데에 있느냐 아니면 음절의 끝에 있느냐, 또 음절 끝에 온다고 하였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음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양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한 음운의 위치와 주변 환경을 가리켜서 음운 환경 또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조건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음절의 어느 위치에 있으며 그 주변에는 어떤 음운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환언하여 진술될 수 있다. 그것이 변동이다. 그러나 이렇게 풀어 놓은 ‘변동’도 어려운 말이다.

학습자들에게 있어 ‘변동’이라는 개념어는 형태소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변동’은 형태음소론의 소관 분야이고 ‘변동’은 형태소의 기본형태의 변동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전제도 없이 ‘ㄷ’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변동의 올바른 정의도 아닐뿐더러 ‘ㄷ’이 ‘ㄷ’으로 바뀐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인용한 교과서 문장의 ‘형태소’, ‘형태소의 음운의 조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난해하고 방향성 없는 진술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법 교과서를 읽고 해독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을 도우려 한다면, 즉 학습을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내하려면 형태에 대한 기본 관념부터 적절한 분량으로 소개해야 한다. 교과서는 82쪽에서 ‘형태소’를 설명하고 있다. 지금 ‘2. 음운의 변동’에서 요구되는 것은 형태소의 명확한 정의가 아니라 ‘변동’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간략한 설명이다.

(1) 형태와 변이형태

형태란 소리를 말한다. 표기 ‘꽃’은 표기가 있기 전부터 소리로 존재해 있던 말이다. 표기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은 표기 방법이 비교적 최근에(1443년) 발명되고 정비된(1933) 한국어에서는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꽃’이라는 표기를 정하기 전부터 이미 ‘꽃’으로 표기되도록 인식된 소리 X가 있었던 것이다.

이 X를 표기하는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X를 한 가지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꽃’으로 표기되는 소리 X, 의미상으로는 ‘花’를 뜻하는 소리 X는 어떠한 소리의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발음하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X가 혼자 있을 때는 / /

X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꼬치/, /꼬출/, /꼬츠르/

X는 비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는 /꼐만/, /꼐/

X는 실제 소리로는 /꼐/, /꽃/, /꼐/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소리를 우리는 형태[morph]라고 부른다. 형태소는 /꼐/, /꽃/, /꼐/이라는 소리의 집합으로 존재하는 추상적 집합체로서의 단위 X를 말한다. 우리가 ‘변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들 소리 중에 하나가 근원적인 소리, 곧 근원적인 형태[morph]일 것이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근원적인 형태를 기본형태라 한다.

‘변동’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의 설명을 기대어서 설명하자면, 근원적인 형태, 즉 기본형태가 다른 형태소와 만날 때 모양이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그 때 바뀌는 부분은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경계선에 있는 부분 즉 그 형태의 맨 끝부분인데, 교과서에 말하는 ‘변동’이란 바로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음소의 바뀔 현상을 말한다.

기본형태는 변동의 현상을 설명하기 좋은 쪽으로 선택하여 정하는데, 위의 /꼐/, /꽃/, /꼐/로 존재하는 X는 {꽃}이 기본형태가 될 수 있다. 국어의 음절끝소리 현상을 근거로 {꽃}의 /ㄷ/은 혼자 발음될 때는 /ㄷ/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고, 뒤에 비음이 올 경우는 중화규칙에 따라 /ㄷ/을 /ㄷ/으로 바꾼 뒤에 다시 /ㄴ/으로 바뀐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ㄷ/이 그대로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도 훌륭한 증거가 된다. 다른 것을 기본형태로 잡았을 경우에는 설명이 어려워진다.(간결하고 일반적이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쪽으로 기본형태를 잡는 것이 원칙이다.)

이 {꽃}은 추상적인 존재 X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로서 실제 언어음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꼐/, /꽃/, /꼐/을 형태소 {꽃}의 변이형태[allomorph]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변동’이란, 기본형태로 표시되는 형태소의 내부 음소가 음운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바뀌어 변이형태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형태, 기본형태, 변이형태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들 것은, ‘변동’이라는 현상은 대부분의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교과서의 진술이 맞는 말이지만,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문법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음조화나 모음동화의 경우에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동 현상이 관찰되는 때가 많다.

(2) 개념어 ‘변동’의 뜻의 그 한계선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법하다. 그 질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꽃}이 /꼐/, /꼐/으로 되는 것을 변동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ㄷ/이 /ㄷ/, /ㄴ/과 같이 다른 소리로 바뀌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음성학적으로 같은 소리를 두 번 내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다면, 같은 /ㄷ/이 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생각해볼 것은 /ㄷ/이 조금 다른 소리 /ㄷ/으로 되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없을까? 물론 있다.

예를 들면, ‘꽃으로’를 말할 때 나는 [ㄷ]과 ‘꽃이’를 말할 때 나는 [ㄷ]은 같은 소리가 아니다. 실제로 발음해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에서 소개한 ‘구개음 찾기’로 해보면 알겠지만 ‘꽃으로’의 [ㄷ]과 ‘꽃이’의 [ㄷ]은 소리 나는 부위가 다르다.

이러한 ‘꽃으로’를 말할 때 나는 [ㄷ] 소리를 ‘꽃이’를 말할 때 나는 [ㄷ] 소리로 하려고 하면 매우 어색하게 들리고 발음하기도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상대적으로 ‘꽃으로’를 말할 때 나는 [ㄷ] 소리로 ‘꽃이’를 말하려고 하면 특별히 어색한 것은 느낄 수 없다. 그러나 주로 이런 발음은 여성들에게 많고 남성들에게서는 잘 들을 수 없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발음은 아니다. 주로 예쁘고 애교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변동이라고 볼 수 없는가? 바로 이 질문이 최종적으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다. 답은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이다. ‘변동’이라는 말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다른 음소로 생각되는 음소로 바뀌는 현상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ㄷ/과 /ㄷ/, /ㄴ/은 한국어에서 단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음소들이다. /츠/과 /돈/, /침/과 /님/을 비교하여 보라. /ㄷ/, /ㄷ/, /ㄴ/의 바뀔음으로 단어가 바뀌었다. 그러나 ‘꽃으로’의 [ㄷ]과 ‘꽃이’의 [ㄷ]은(국제음성기호로는 로 구별되어 표기된다.) 한국어에서는 음소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음성들이다. 즉 같은 음운 /ㄷ/으로 묶인다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ㄷ/로 묶이는 이들 소리가 중국어에서는 음운의 가치를 가져서 별도의 음소로 분리된다. 만약 중국어에서 ‘꽃으로’와 ‘꽃이’ 같은 바뀔음이 있었다면, 이것은 ‘변동’이라 이름붙일 만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음성 수준에서의 바뀔, 즉 ‘변이’일 뿐이지 ‘변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변이’는 음운론의 중요 영역을 벗어난다.

문법 교과서의 변동이란 바로 이렇게 제한적인 의미의 것이다. 문법 교과서의 ‘변동’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음성)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운이 바뀐다.’는 의미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3) 음절의 구조와 음운 배열

일본 사람들은 ‘볼(ball)’을 ‘ボール[보오루]’라고 쓰고 그대로 발음한다. 그러나 우리는 ‘볼’이라고 쓰고 [볼]이라고 발음한다. 일본어를 잘 들어 보면, 우리말과 같이 다양한 받침 발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일본어의 특징은 음절 구조에서 기인한다. 이와 같은 음절의 구조를 개방음절이라고 한다. 음절의 맨 끝이 열려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은 폐쇄음절이다. 우리말을 발음할 때는 끝을 터뜨리지 않고 빨리 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호수’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서 ‘열린 소리’로 끝날 때도 있지만, ‘반석’과 같이 마지막의 ‘ㄱ’이 터지지 않고 닫혀서 ‘닫힌 소리’로 끝날 때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나라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음운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음운만 다를 뿐 아니라 음절의 구조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가 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이름은 ‘Tchaikovsky’이다. 우리말에서는 볼 수 없는 세 종류의 자음(/ㅈ/, /ㅊ/, /ㅋ/)이 모음의 매개 없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옛날 책인 용비어천가에도 보면 ‘닌뤼시’라는 지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역시도 다른 나라의 지명으로서 우리말에는 없는 음운의 배열인 것을 한글이 가진 우수한 표음력을 바탕으로 표기한 것일 뿐, 우리말에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Tchaikovsky’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는 연속이 불가능한 자음들이 연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말에서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표기로 써놓고 우리가 보기에 이 표기가 매우 낯설다는 느낌이 든다. 이 표기에 반영된 음운 지식을 통해 우리는 한국어에서 허락되는 음운 배열과 러시아어에서 허락되는 음운 배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배열을 형태소 구조라고 할 때도 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것은 음운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음운만 다르지 않고,

음절의 구조도 다르며, 또 한편, 음절을 이룰 수 있는 음운의 연속체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언어음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어음이 다르다는 것은 개별적인 언어음으로서의 음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음운의 배열 방식과 그것이 배열되어 이루어진 음절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음운적 조건이 다르다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음운 변동은 음절의 구조와 음운 배열 방식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4) 변동규칙의 종류와 체계

7차 문법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은 다음과 같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운의 동화: 자음 동화, 구개음화, 모음 동화, 모음 조화
- 음운의 축약과 탈락: 축약, 탈락
- 사잇소리 현상

이것을 교과서 내용을 첨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평폐쇄음화, 자음군 단순화
- 음운의 동화 - 자음 동화(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모음 동화(올라우트, '모음 순행 동화), 모음 조화
- 음운의 축약과 탈락 - 축약(기음화, 음절 축약), 탈락(활용에서 일어나는 어간의 모음과 자음의 탈락)
- 사잇소리 현상 - ㄷ첨가, ㄴ첨가

이것을 참고하고, 이제 본격적인 음운론의 한 저서인 허웅(1993)에서 변동 규칙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로 체계의 제약성으로 일어나는 변동

- 1) 음절 짜임새 맞추기
 - (1) 소리 이음: 먹이, 옷을. 있어서
 - (2) /ㅎ/ 끝소리 자리 바꾸기: 놓다, 많다
 - (3) 겹받침 줄이기: 녀, 값, 앉-
 - (4) 일곱 끝소리 되기: 부엌, 옷, 꽃, 있-
- 2) 머리소리 규칙
 - (5) /ㄹ/ 머리소리 규칙: *로인, *량심
 - (6) /ㄴ/ 머리소리 규칙: *녀자, *닉명
- 3) 닿소리 이어바꿈
 - (7) /ㄴ/의 /ㄹ/ 되기: 만리, 천리, 팔년, 칼날, 달나라
 - (8) /ㄹ/의 /ㄴ/ 되기: 종로, 감로, 중력, 백리, 백로, 압력
 - (9) 콧소리 되기: 먹는다, 받는다, 잡느냐, 값나가다, 훔내, 닦는다

2. 발음의 편이로 일어나는 변동

- 1) 닳음
 - (10) 입천장소리되기: 같이, 굳이, 달히다, 묻히다
 - (11) 홀소리 어울림: 저어도, 그어도, 베어도, 나아도, 얹아도, 보아도
 - (12) /ㄷ/의 공깃길 닳기: 도와, 도우니, 누이니, 고이, 구이(예외: 추위, 더위)

- (13) /ㄷ/의 공깃길 닳기: 들어, 물었다, 걸어라
- (14) /ㄴ/ 치닿기: 남비~냄비, 두루마기~두루매기, 가랑이~가랭이, 가자미~가재미
- (15) 끝소리의 자리 옮기기: 앞보다[압보다], 꽃밭[콧밭], *표준 발음 아님.

2) 줄임

- (16) 반홀소리 되기: 씹어, 찌다, 줄여, 잡혀, 뛰어, 쥐어, 돼
- (17) 홀홀소리 되기: 보이다→뵈다, 파이다→꽤다, 자이다→재다→재우다
- (18) 거센소리 되기: 먹히다, 만형, 입학, 잣히다
- (19) 된소리 되기: 값보다, 짚불, 밭도랑, 학교

3) 없앴

- (20) /ㄹ/ 없애기: 떠서, 꺼라, 써, 달리, 널리, 흘러
- (21) 고름소리 없애기: 보+으니→보니, 울+으며→울며
- (22) /ㄴ/ 없애기: 서+어서→서서, 가+아서→가서
- (23) 반모음 'ㄹ' 없애기: 하셨다(/ㅅ, ㅈ, ㅊ/가 경구개음이므로 /ㄴ/:/ㄹ/ 자리에서는 중화되는 일이 있다)
- (24) /ㄹ/ 없애기: 놀+으니→노니, 놀+으시다→노시다
- (25) /ㅅ/ 없애기: 그어, 이어, 나오나
- (26) /ㅎ/ 없애기: 까마니, 하야며, 그렇+어→그래
- (27) /ㄷ/ 없애기: 아니하다→않다, 그러하다→그렇다, 다정타, 부지런타, 무심코, 생각다 못해, 못지 않다, 급히, 고요히, 넉넉히
- (28) 짧은 소리 되기: 알:아라→알아라, 멀:어도→떨어도, 안:으니→안으니

3. 표현을 똑똑하게 하려는 데서 일어나는 변동

- (29) /ㄴ/ 덧나기: 물약, 쌀엿, 집일, 앞일, 앞이마, 밭일
- (30) /ㄷ/ 덧나기: 콧등, 뒷날, 냇가, 촛불, 등불, 잇몸, 덧잎
- (31) /ㄹ/ 겹치기: 할 일, 불일, 흘러

교과서가 13가지 종류의 변동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허웅(1993)에서 제시한 변동은 모두 31가지나 된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과 허웅(1993)에서 소개하고 있는 음운의 변동을 비교해봄으로써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얼마나 협소한가를 알 수 있다. 아마도 교과서에서 많은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일 터이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목의 심화 과목으로서 문법은 음운론뿐만 아니라 형태론과 통사론, 의미론, 이야기를 다루고 간접적으로는 문법론까지 가미하여 다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론을 상세히 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문법 교과서의 단순하고, 한편으로 체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런 분류는 본격적인 음운론의 견지에서 본다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이라는 과목의 목표를 생각하여 본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문법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 언어 문화적 가치에 대하여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국어 과목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 더 있다. 우리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말을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기르는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국어 지식’이라 부르고 있다.(2쪽 ‘일러두기’에서)”

문법 교과서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한국어라는 언어에 있는 모든 음운 현상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라는 언어 안에 어떠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설명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다. 즉 문법 교과서를 통해 한국어에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모국어 화자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어떤 식으로의 의식을 가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문법 교과서의 내용은 충분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문법 과목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을 성취하기 위하여 적절히 활용함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할 것도 없다.

(5) 발음과 표기

문법 교과서에서 ‘2. 음운의 변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음운 변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파악한다.**
- 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기른다.**

‘음운 변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나 ‘국어의 음운 변동 규칙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다. 이제 음운 변동을 다루는 이 단원에서 ‘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차례이다.

사실 학생들은 음운의 변동을 배우기 전에 이미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생이라면 사실상 중등교육의 최상 단계로서, 발음 때문에 불편을 겪을 나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문법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음운의 변동은 이미 자기들의 발음에 대한 깨달음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이미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음에 대한 성찰로 얻어지는 깨달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음운의 변동을 배워서 학생들이 얻어야 할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무엇일까?

현재 문법 교과서가 ‘발음을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활동들은 모두 표준발음법의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발음’이란 표준발음법의 내용과 대치되지 않게 발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발음법이라는 규정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단어의 표준발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표준발음법 규정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단어의 표준발음을 추론할 수 있도록 잘 구비되어 있는 규정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헛갈릴 때가 많다. 또한 표준발음법이라는 규정을 음운의 변동을 배우는 이 시간에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다.

표준발음법이라는 규정이 어떤 자연의 질서를 따른 규정이 아니라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표준발음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어는 그것 자체가 이미 자의적인 것으로서 자연 언어로서 실재하는 언어라 하기는 어렵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집단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들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식의 언어를 구사한다고는 할 수 없다. 어떤 목적에서인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표준어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규정된 추상적인 언어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원리를 안다고 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자기가 아는 방언음에 대하여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표준발음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 것인지를 비교·대조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예컨대 경상도 방언 화자일 경우, 그들에게 표준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발음법이나 음운의 변동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경상도 방언은 억양으로 음운의 부족한 면들이 보상받기 때문에 억양까지를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음운의 변동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표준발음을 습득하기가 어렵다. 표준발음을 습득하려면 억양도 함께 교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상도 방언 화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경상도 방언은 버려야 하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아름다운 자연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배우는 ‘국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목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실제로 ‘올바른’이라고 표현된 ‘표준발음’을 익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너무 지엽적인 공부가 된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볼 때에는 오히려 ‘발음과 표기 사이의 거리’를 배우는 것이 보다 나은 학습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습 내용을 자체를 이렇게 잡으면 표준발음은 저절로 습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표기법 자체가 표준 발음을 전제하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서 ‘어법에 맞게’ 적는 우리말의 맞춤법 자체가 이미 동남방언이나 서북방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리와 표기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한글날을 기념할 때 보아도 그것은 확연히 드러난다. 한글날인데 ‘한국어’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다. 한글날 다큐멘터리를 보면 모두가 ‘한국어’를 이야기한다. ‘한글 전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정화 운동’을 생각한다. 한글만으로 문서를 표기하는 것과 순우리말만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한글 전용’이란 한자어가 있어서 한자로 써야 할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그 한자어를 순화해서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자는 말은 아닌 것이다.

말과 표기를 구별하여 인식할 때 ‘음운의 변동’ 단원은 뜻 깊게 다가온다.

변동규칙이란, 우리가 하는 말을 관찰하여 기본형태를 설정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맥락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시 잘 관찰하여 발견해낸 질서 체계이다. 한편 우리말의 표기법은 ‘소리대로 적기’를 하고 있지만 ‘원형 밝히기’의 규정을 또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표기에는 ‘원형’으로서의 기본형태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드러나는 기본형태나 소리대로 적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표준어와 표준발음이다. 표기법은 기본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운의 변동 중 어떤 것은 그것이 적용된 그대로 표기에 반영하기도 한다. 예컨대 두음법칙이 적용된 것은 적용된 것을 표기법에 반영하고(로인→노인, 여자→여자), 구개음화가 적용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은 것을 표기법에 반영한다(가치→같이, 마치→말이).

따라서 ‘올바른 발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단원에서 해야 하는 학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형태를 알고, 그 기본형태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며, 그것이 표기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표준어와 표준발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굳이 표준발음을 가르치려 할 필요는 없다. 잠재적으로 습득하게 되어 있다.

교과서 65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내용

예를 들면, 같은 ‘꽃’이라는 형태소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에는 받침의 ‘ㄷ’ 소리를 내지 않고 이를 ‘ㄷ’ 소리로 바꾸어 [꼐]이라고 발음하고

학생들에게 ‘꽃’이라는 형태소를 ‘단독’으로 발음할 때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단어 없이 혼자 발음될 때라는 뜻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받침의 ‘ㄷ’ 소리를 내지 않고 이를 ‘ㄷ’ 소리로 바꾸어 [꼐]이라고 발음한다고 하는 내용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 스스로는 ‘ㄷ’을 ‘ㄷ’으로 바꾸어 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자기가 내는 소리가 ‘ㄷ’ 소리인지 ‘ㄷ’ 소리인지 별 의식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위에 인용한 교과서의 표현은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꽃’이라는 형태소를 그것 하나만 발음할 때에는 ‘꼐’와 같은 발음이 된다. 우리가 ‘꽃’을 발음하는 것은 사실 /꽃/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꼐/을 발음하는 것이다.

교과서 65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내용

어떤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위 구절은 변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음 조화나 모음 동화를 보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가 아닌데도 변동이 일어나는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다.

▶ **모음 동화의 예**

아비→[애비]	잡히다→자피다→[재피다]	아지랑이→[아지랭이]	어미→[애미]
먹이다→머기다→[메기다]	고기→[괴기]	속이다→소기다→[쇠기다]	죽이다→주기다→[쥬기다]

▶ **모음 조화의 예**

알록달록 : 얼룩덜룩 살랑살랑 : 설렁설렁 오목오목 : 우묵우묵 졸졸 : 줄줄 찰찰 : 철철 달달 : 들들

위의 예들은 교과서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변동의 정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를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

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학습에서 교사가 문법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교과서 66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내용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낱, 낫, 낮, 낯, 날’과 같은 단어들을 읽어 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낱]이라고 발음한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낱, 낫, 낮, 낯, 날’ 발음이 [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t/ 라는 소리가 지나는 특징과 그 특징에 비추어 볼 때 /t/가 다른 음운 /s, ts, tsh, th/와 가지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t ㄱ]와 의 관계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매우 번잡한 일이다. 그러므로 위 문장은 교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낱, 낫, 낮, 낯, 날’과 같은 단어들을 읽어 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발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발음의 표기는 [낱]과 같이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즉, ‘낱, 낫, 낮’ 등을 한국 사람들은 모두 [낱]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국어학을 접한 사람들에게 위 문장은 전혀 의심할 것이 없는 문장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알 수 없는 모순이 숨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교과서 68쪽에서 오해하기 쉬운 내용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ㅇ’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ㄷ, ㅌ’이 센입천장소리 ‘ㅈ, ㅊ’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구개음화(구개음화)라고 한다.

위 문장은 두 개의 어려운 단어, ‘형식 형태소’와 ‘구개음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략한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다.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라는 말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66쪽에서도 나타난다. 아직 형태소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전 학년에서 배운 적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식 형태소’라는 단어와 ‘실질 형태소’라는 단어를 가르치려 할 때 교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정의이다. 예컨대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정의는 학생들에게 외울 거리를 하나 더 주는 것밖에 그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직접적인 정의의 방식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언어학에서도 이러한 직접적인 정의로 모든 언어 현상을 포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더욱이 언어학을 하지도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외우게 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러할 때에는 간접적인 정의의 방식이 도움이 된다. 예컨대, ‘엄마가’에서 ‘가’, ‘손으로’에서 ‘으로’ 같은 것들이 형식 형태소이고, ‘엄마’, ‘손’ 따위가 실질 형태소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는 훨씬 수월한 방식이다.

‘구개음화’라는 말에서 ‘구개음’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구개’는 입천장을 가리키는 말인데, 입천장은 센입천장과 여린 입천장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혀끝으로 입천장을 만져보게 하거나 여린입천장을 만질 때는 실제로 손가락을 넣어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개음화’는 ‘입천장소리로 됨’이라는 뜻인데, ‘구개음화’의 ‘입천장소리’는 ‘센입천장소리’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ㄷ, ㅌ’이 ‘ㅈ, ㅊ’으로 되는 것이 왜 구개음화인지에 대해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음성을 다루는 부분에서 해 보았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ㅣ’ 모음을 발음하게 한다. 그리고 ‘ㅣ’ 모음의 발음을 끝내고 입모양을 바꾸지 못하게 한 다음, ‘ㅣ’ 모음을 발음할 때와는 반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다. 그러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센입천장음을 지각하게 도와준다.

이번에는 ‘디’를 숨을 내쉬면서 발음하게 하고, 반대로 ‘디’를 숨을 들이쉬면서 발음하게 한다. 그러면 /ㄷ/가 소리 나는 부분이 ‘치경(윗잇몸)’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윗잇몸에 해당하는 부분만 시원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 치’를 발음하게 하고, 동일한 발음 동작을 하면서 숨만 반대로 들이쉬게 한다. 그러면 ‘ㅣ’ 모음을 발음하면서 느껴졌던 부위와 비슷한 부위가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ㄷ, ㅌ’가 ‘ㅈ, ㅊ’로 되는 것은 ‘ㅣ’ 모음과 비슷한 발음 지역인 센입천장으로 혀바닥이 옮겨가서 생기는 현상임을 이해한다면, 구개음화 현상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의 차이와 형태[morph]의 개념 이해하기 활동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의 명칭을 써보게 하고 그것의 발음을 생각하여 보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명칭을 써보면 다음과 같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

이제 위 명칭에 조사 ‘이’를 붙여서 발음하게 해 본다.

기여기, 니으니, 디그시, 리으리, 미으미, 비으비, 시으시, 지으시, 치으시, 키으기, 티으시, 피으비, 히으시

이제 위 명칭에 조사 ‘은’을 붙여서 발음하게 해 본다.

기여근, 니으는, 디그슨, 리으른, 미으른, 비으븐, 시으슨, 지으슨, 치으슨, 키으근, 티으슨, 피으븐, 히으슨

위가 일반적인 발음의 예이다.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고 하면 매우 어색할 것이다.

지으지, 치으치, 키으기, 티으티, 피으피, 히으히

따라서 명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은 실제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임을 알 수 있다. 뒤에 것은 실제 소리 덩어리를 표시한 것이고, 앞에 것은 그것을 표기하는 방식이다. ‘디귿’이라고 표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ㄷ’의 명칭을 기억하기로는 ‘디귿’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읒,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도 마찬가지이다. 이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지읒, 치읓, 키읓, 티읓, 피읓, 히읓’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발음한 소리의 덩어리를 형태[morph]라고 한다. 실제 소리에 해당하는 형태는 표기와 많이 다를 수 있다.

•국어에서 단어의 첫 음절 첫소리에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소리는?

- ① ㅂ ② ㅇ ③ ㄹ ④ ㅁ

•다음 중에서 분포하는 위치가 언제나 같을 수 없는 음운을 고르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답은 ‘ㅇ’과 ‘ㅎ’이다. ‘ㅎ’은 어떤 식으로 해봐도 음절 끝에서는 발음할 수 없다. 항상 음절 첫소리로서만 발음된다. 반대로 ‘ㅇ’은 첫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음절 끝에서는 항상 발음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음소로 분립하여 있으나 분포 상으로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상보적 분포의 의미를 가르쳐 준 상황에서 풀기에 적합한 문제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상보적 분포가 무엇일 의미하는지, 음소를 설명할 때 잠시 언급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어 본 것이다.

사실 음운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음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변동’이라는 말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음운에 대해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

음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극 배우 이야기를 하면 좋다. 전상범 교수가 든 예인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는 1인 2역을 해야 하므로, 한 무대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 음소도 마찬가지이다. 한 음소는 무대(환경)를 달리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한 무대(환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다. 이와 같이 각각의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모국어 화자에겐 한 소리로 이해되는 소리들의 집합을 음소 혹은 음운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로 소리로 인식되는 서로 다른 소리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분포를 상보적 분포라고 한다.

◆ “납량 특집”의 표준 발음은?

‘납량 특집’의 표준 발음은 [남양특집]이다. 이것이 한자어이므로 자주 헛갈리게 되는데, 같은 음운 현상으로 ‘섭리, 백로, 떨리’ 같은 것들이 있다. ‘납량 특집’에서 음운 규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그 중에서 해명되지 않는 규칙이 하나 있다.

→ 납량특집→남양특집→남양특집→남양특집

‘납량 특집’이 겪는 음운 규칙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음운 규칙은 ‘ㅂ’이 ‘ㄴ’을 닮아서 같은 자리의 비음 ‘ㄴ’으로 변화되는 비음화, 그리고 ‘ㄱ’이 ‘ㄷ’과 만나서 ‘ㄷ’이 된소리가 되는 된소리되기가 있다. 여기서 해명되지 않는 것은 ‘ㄹ’→‘ㄴ’이다. 이것은 무슨 규칙인가? 이희승 선생은 그의 국어학 개설에서 이것을 한자어에 존재하는 특유한 현상이라고만 하였으나 허웅(1993)은 음운 배열의 제약으로 보았다. 그래서 ‘ㄱ, ㄷ, ㅂ’ 뒤에는 ‘ㄹ’ 소리가 연이어 나지 못하고 ‘ㄹ’은 ‘ㄴ’으로 바뀐다는 기술을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한자어에서 나타난다. 허웅(1993)은 이를 ‘ㄹ’의 ‘ㄴ’ 되기라고 하였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표준 발음이었고, 경우에 따라 ‘납’을 강조하여 한자어의 의미를 살리려는 사람들은 ‘량’을 ‘양’으로 바꾸어 [나양특집]이라고 발음하는 일도 있다. 이것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현상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납량’의 ‘납’과 ‘량’을 다른 단어의 연결체로 인식하는 경우에 ‘납’을 분명하게 발음하고 나면 ‘량’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또 ‘납’이라고 입을 닫고 나면 ‘양’의 발음도 불가능해지는데, 이 때 가능한 발음은 ‘양’밖에 없다. 그래서 ‘납양특집’이라고 두음 법칙을 적용시키게 되고 그 다음 연음 법칙(음절재구조화)이 적용되어 [나양특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개인 방언이나 지역 방언에 자주 있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음운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각 구성요소를 화자가 그 낱말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곤란/의 경우에 ‘곤’과 ‘란’을 따로 인식하는 사람은 [곤란]으로 발음하기가 쉽고, ‘곤란’을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는 경우는 [골란]이 되기 쉽다. /신라/의 경우는 둘로 나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실라]라는 발음 하나로만 발음되는 것이다.

① 다음에 제시한 자료들의 소리는 실제로 어떻게 나는지 조사하여 보고, 규칙을 발견하여 주어진 형식으로 적어 보자. (표준 발음법 9항)

• **밖** → [박] **밖도** → [박또]
 • **부엌** → [부억] **부엌도** → [부억또] → 규칙 : ㅍ, ㅋ → ㅂ / 음절의 끝소리에서

• **잎** → [입] **입도** → [입또] **잎 위** → [이 뷔] → 규칙 : ㅍ → [ㅂ] / 음절의 끝소리에서

• **웃** → [온] **웃도** → [온또] **웃 안** → [오 단]
 • **있(고)** → [인(꼬)] **낮** → [날] **꽃** → [꼴]
 • **바깥** → [바깥] **히읃** → [히은] → 규칙 : [ㅅ, ㅆ, ㅈ, ㅊ] → [ㄷ] / 음절의 끝소리에서

교사용 지도서는 이 활동이 ‘국어 발음 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미 고등학교를 다닐 정도로 성숙한 학생들에게 ‘국어 발음 생활의 기초’란 어떤 의미의 말인지 의문이 생기는데, 왜곡된 관점의 서술은 아닐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다. 어쨌든 학생들에게 이 부분의 활동을 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학생들이 ‘웃, 꽃, 낮’ 등을 발음할 때 나는 끝소리는 ‘ㄷ’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는 학자들의 결정이 그것이다. 학생들도 ‘웃, 꽃, 낮’의 끝소리 발음이 동일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발음이 왜 ‘ㄷ’인지는 잘 모를 수 있다. 즉 ‘웃, 꽃, 낮’의 끝소리 발음과 ‘ㄷ’과의 필연성을 짐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왜 하필 ‘ㄷ’이라는 것을 그 끝소리로 선택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그것은 너무 상세한 음운론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만 그 끝소리는 ‘ㄷ’으로 나타내기로 했다는 대답이 이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요긴하다. 사실 /ㄷ/으로 중화된다는 그 규칙에서 /ㄷ/ 중화설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또 설명의 편이를 위해 /ㄷ/ 중화설에 힘을 실어주는 학자도 있다. 이런 복잡한 지식의 세계로 학생들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ㄷ’으로 나타내기로 했다는 말을 해줌으로써, 이 규칙에 대하여 학생들은 쉽게 수긍하고 다음 이해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둘째 형태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에 나온 ‘부엌 안, 잎 위, 웃 안’에서 뒤의 ‘안, 위, 안’은 실질형태소이다. 그럴 경우 ‘부엌, 잎, 웃’과 ‘안, 위, 안’ 사이에 경계가 성립되고 앞 요소의 끝소리는 연음되는 것이 아니라 중화규칙을 경

험하고 그 뒤에 연음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에 대해서는 문법책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 교사가 개입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발음을 알아보자. (표준 발음법 15항)

- **맛있는 음식을 멋있는 식당에서 먹었다.**
 맛있는 → [마신는], [마딘는] 멋있는 → [머신는], [머딘는]
- **뜻 있는 분들의 값있는 희생에 감사합니다.**
 뜻 있는 → [뜨 단는] 값있는 → [가빈는]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발음법 제1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젖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다] 걸웃[거돌]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겹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는 경우 각각의 예를 제시해 준다. 앞에서 배운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개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 두 가지 예를 직접 발음해 보고 모음별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끝소리가 나는 모습의 공통점(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와 이어진다.)과 차이점(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을 발견해 보도록 한다.

┌실질 형태소와 결합 : 꽃 위, 밭 아래, 늪 앞, 맛없다, 걸웃
 └형식 형태소와 결합 : 낮으로, 낮이, 꽃을, 앞으로, 밭이

발견한 점을 발표해 보고 모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 단어의 받침 뒤에 있던 소리들을 살려 소리 내고, 실질 형태소가 오면 끝소리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모두 발견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두 번째 문제를 먼저 풀어 발견한 규칙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다. 평소에 ‘맛있다’와 ‘멋있다’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끝소리규칙에 따라 발음한 경우와 받침 소리를 그대로 살려낸 경우로 나뉠 것이나 대체로 후자의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발음이 더 자연스러운지 학생들의 생각을 묻고 표준 발음법 15항에서 두 소리에 관련된 규칙을 찾아보도록 한다.

③ 다음 단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음별로 알아보자.(표준 발음법 10항, 11항)

- **몹** → [목] **값** → [갑] **외값** → [외골]
- **할지** → [할찌] **안고** → [안꼬] **않다** → [알따]
- **익지** → [익찌] **점다** → [점따] **윤지** → [윤찌]
- **넙둥글다** → [넙뚱글다] **넙죽하다** → [넙쭈카다]
- **넙다** → [넙따] **넙고** → [넙꼬] **넙지** → [넙찌]
- **밭다** → [밭따] **밭고** → [밭꼬] **밭지** → [밭찌]

형태소 결합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라는 점이 다르다. 현대국어에서 구개음화는 위 1번 문제와 같이 형식 형태소인 조사나 접사가 결합한 경우에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한 형태소 내부나 합성어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현디(天地) → 천지 → 천지, 부터 → 부처, 디다 → 지다, 더 → 저, 도타 → 쪼타 → 쫄다』

① 앞에 제시한 모음 동화의 설명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보자.

[ㅏ, ㅑ, ㅓ, ㅕ] → [ㅗ, ㅛ, ㅜ, ㅠ] / 소리의 앞에서
 [ㅓ, ㅕ] → [ㅑ, ㅠ] / 소리의 뒤에서

② 위의 법칙에 해당되는 소리들을 다음 표에 표시한 뒤 관찰하여 보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동화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국어의 단모음 체계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모음 가운데 ‘ㅏ, ㅗ, ㅑ, ㅓ, ㅕ, ㅛ, ㅠ, ㅡ, ㅣ’의 열소리는 아무리 소리를 길게 내더라도 그 소리를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모음을 단모음이라 한다. 먼저 단모음을 직접 발음하면서 분류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모음을 소리 낼 때 혀의 앞 뒤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고, 혀가 입천장을 향해 가까워지는 정도 즉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분화된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내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평순 모음이라 한다. 모음 가운데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것을 이중 모음이라 한다. 이중 모음은 처음에 시작되는 소리의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혀 위치가 ‘ㅣ’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 ㅟ, ㅠ, ㅡ, ㅢ, ㅣ, ㅤ
- 혀 위치가 ‘ㅓ/ㅕ’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 ㅖ, ㅗ, ㅛ, ㅜ, ㅠ
- 혀 위치가 ‘ㅡ’에서 시작되어 ‘ㅣ’로 끝나는 것 : ㅚ

2번 문제를 비롯한 국어의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한자의 의미만 알아도 이해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 이들 한자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우리말로 바꾸어 보도록 하는 활동도 이해를 돕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모음 삼각도

이렇게 정리가 끝나고 나면 ‘동화(同化)’의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동화란 어떤 음이 인접하는 다른 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같은, 혹은 유사한 음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이른다. 이 경우, 대체로 동화시키는 음(환경으로 되어 있는 음)과 동화당하는 음은 공통된 조음상의 특징을 지닌다.

위 그림을 보고 동화인 이유를 설명한다. [ㅏ, ㅑ, ㅓ, ㅕ]가 [ㅗ, ㅛ, ㅜ, ㅠ]로 변한 것이 동화인 것은 [ㅏ, ㅑ, ㅓ, ㅕ]가 [ㅣ]와 가까운 소리인 [ㅗ, ㅛ, ㅜ, ㅠ]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ㅓ, ㅕ]가 [ㅑ, ㅠ]로 변하는 것이 동화인 것은, [ㅣ]를 가지지 않았던 단모음 [ㅓ, ㅕ]가 [ㅣ]를 가지는 모음 [ㅑ, 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소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 글을 읽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리는 왜 변할까?

음운과 이음은 마치 카멜레온과 그 변화무쌍한 피부색에 비유할 수 있겠다. 카멜레온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자신의 피부색을 순식간에 변화시킨다. 이것은 본능이며, 조상들로부터 타고난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속성을 지니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존을 위해서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부색을 바꾸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그러한 노력이 반복되면서 유전적인 속성으로 전이되었던 것이다. 하나의 추상적 음운이 환경에 따라 굴곡 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 ‘먹는’은 발음할 때는 [멍는]이 된다. ‘먹->멍’으로 변하는 이유는 뒤에 오는 소리를 고려할 때, ‘먹’보다는 ‘멍’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기 때문이다. 즉, 원래 자기 위치를 포기하고 뒤에 오는 소리의 위치로 미리 다가가서 소리를 낸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실제로 ‘먹는/ 멍는’을 소리 내어 비교해 보라. 이처럼 상이한 두 소리들이 비슷한 위치나 방법으로 닮는 것을 동화(assimilation)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소리 변화는 동화에 의하여 일어난다. 여기에는 유성음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등이 있으며, 음운의 탈락과 축약도 노력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소리를 변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표현효과를 위해서이다. 인간이 두 얼굴의 야누스이듯이 음운변화에도 동화와 상반된 심리작용이 작용하고 있다. 비록 힘은 더 들지만 표현상 강하거나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음운을 변화시키는 현상이 그것이다.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음소의 연결로 청각 효과가 약하다고 인지될 경우, 오히려 공통성이 적은 다른 음소로 바뀔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힘이 더 들더라도 청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화(dissimilation)라고 한다. 복합어 형성시의 경음화 현상, 자음 바뀔, 모음 바뀔 현상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③ ‘냄비, 멧쟁이, 멩기다’처럼 한 형태소 안에서 ‘ㅣ’모음 동화를 겪은 후 아주 굳어져 표준어로 인정하는 말들을 모둠별로 더 찾아보자.

새끼, 재미, 멧쟁이, 채비, 내리다, 새기다, 가난뱅이, 울챙이, 수수께끼, 도깨비, 비렁뱅이 등,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멧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등

한편,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이오[이오/이요], 아니오[아니오/아니요]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이중 모음이 된 단어를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으로 표준발음법 제22항에 있다. ‘ㅣ’ 모음 역행동화의 예와 다른 점은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위 문제에서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ㅣ’ 모음 역행동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다만 표준어로 인정되는 단어들만 소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어 사정원칙 제9항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부연할 수 있다.

< ‘ㅣ’ 모음 역행 동화에 대한 부가적 설명 >

- ① 뜻 : 앞 음절의 ‘ㅏ, ㅑ, ㅓ, ㅕ’ 모음은 뒤 음절에 전설모음인 ‘ㅣ’가 오면 이에 끌려서 ‘ㅗ, ㅛ, ㅜ, ㅠ’로 변하는데, 이를 모음 동화라 한다.
- ②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에 관한 표준어 규정
 - ㉠ 이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 어미(×[에미]), 손잡이(×[손재비])
 - ㉡ ‘아지랑이’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표준어이다.
 - ㉢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단어들
 - 예) ㅓ내기(○) ㅓ시골-내기(○) ㅓ냄비(○) ㅓ동댕이-치다(○)
 - ㅓ나기(×) ㅓ시골-나기(×) ㅓ남비(×) ㅓ동댕이-치다(×)

㉔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ㄹ미장이(○) ㄹ유기장이(○) ㄹ멋쟁이(○) ㄹ소금쟁이(○)
 ㄹ미쟁이(×) ㄹ유기쟁이(×) ㄹ멋장이(×) ㄹ소금장이(×)

※참고) 양복장이 : 양복을 만드는 사람 / 양복쟁이 :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① 다음 의성어, 의태어 자료를 보면서 모음조화에 대하여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알록달록: 얼룩덜룩 살랑살랑: 설렁설렁 오목오목: 우묵우묵 졸졸: 졸졸 찰찰: 철철 달달: 덜덜

• 모음의 종류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조사하여 보자.

양성모음은 작고, 밝고, 가벼운 느낌을 주지만, 반대로 음성모음은 크고,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예들을 더 찾아보자.

표준어 사정 원칙 제8항에서는 ‘강충강충, 발가숭이, 보통이, 봉죽, 뽕정다리, 아서, 아서라, 오뚝이, 주추(주춧돌) 등을 더 들고 있으나 이밖에도, 교사용 지도서의 보슬보슬, 소곤소곤, 꿈질꿈질, 몽실몽실, 산들산들, 반들반들, 남실남실, 자글자글, 대굴대굴, 생글생글과 그밖의 나풀나풀과 같은 것들을 더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을 뒤져보는 활동을 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음 항목 별로 10개씩 찾아보게 하는 것은 모음 조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전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② ‘곱다’와 ‘아름답다’에 연결어미 ‘-아/-어’를 결합한 활용형을 발음하여 보고 모음조화 여부를 알아보자.

아름다워: 아름답(양성 모음) + 어(음성 모음)====>아름다워 ====>모음 조화의 파괴

고와: 곱(양성 모음)+아(양성 모음)====>고와====>모음조화를 지킨 경우

‘고맙 + 어→고마워(고마와 ×), 가깝 + 어 → 가까워(가까와 ×)’ 등과 같은 용언의 활용에서 모음 조화 규칙에 따르지 않는 예들이 표준 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예는 맞춤법 규정 제16항의 ‘다만’의 해설 부분의 ‘모음이 ‘오’인 단음절 어간 뒤에 결합하는 ‘-아’의 경우만 ‘와’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모두 ‘워’로 적기로 하였다.”고 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① ‘쓰이어’는 ‘쓰여, 씌어’의 두 가지 표기를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38항) 이와 같이 다음 단어들의 줄임 표현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짧은 문장을 지어 보자.

보이어, 쓰이어, 뜨이어, 누이어, 트이어

축약은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줄임 표현에는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세히 나열하여 보여주면 학생들은 흥미로워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조(32항~40항)가 준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문제는 38항과 관계가 있다. 38항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38항 ‘ㄱ, ㄴ, ㄷ, ㄹ’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싸이어	쌌어 싸여	뜨이어	띄어	띄어	
보이어	봌어 보여	쓰이어	씌어	쓰여	쓰여
쏘이어	쐈어 쏘여	트이어	띄어	띄어	띄어
누이어	누어	누어			

해설에는 ‘까이어→깨어/까여’, ‘꼬이어→꽤어/꼬여’가 더 있고, 특별히 ‘놓이다’의 경우 ‘되다’로 적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즘엔 생소한 것이다. 다만 ‘놓이어’가 줄었을 경우에는 ‘되어’라 하지 않고 ‘놓여’라고 쓴다. 또 주의할 점은 ‘띄어쓰기, 띄어쓰다, 띄어 놓다’의 경우에는 ‘뜨여쓰기, 뜨여 쓰다, 뜨여 놓다’와 같이 쓰지 않는다. ‘-이’ 다음에 또 ‘-우’가 붙는 형식인 ‘띄우다, 씌우다, 띄우다’와 같은 것에서는 ‘-이’를 앞 음절에 붙여 쓴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짧은 글짓기를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부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서 그 말을 타동사로 만들고, 또 타동사에 붙어서 사동사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의미 변화에 어울리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다.

① 다음에서 밑줄 친 ‘달’은 어떤 음운이 탈락한 것인지 생각하여 보자.

‘ㄹ’이 탈락한 예로는, ‘다달이(달달이)’, ‘마되(말되)’, ‘마소(말소)’, ‘무자위(물자위)’, ‘바느질(바늘질)’, ‘부나비(불나비)’, ‘부삽(불삽)’, ‘부손(불손)’, ‘소나무(솔나무)’, ‘쌀전(싸전)’, ‘우짚다(울짚다)’, ‘화살(활살)’, ‘나날이(날날이)’, ‘무논(물논)’, ‘무수리(물수리)’, ‘미달이(밀달이)’, ‘부넘기(불넘기)’, ‘아드님(아들님)’, ‘주낙(줄낙시)’, ‘차돌(찰돌)’, ‘차조(찰조)’, ‘차지다(찰지다)’, ‘하느님(하늘님)’,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동(不洞, 不凍, 不動)’, ‘부득이(不得已)’, ‘부등(不等)’, ‘부적(不適)’, ‘부정(不正, 不眞, 不定)’, ‘부조리(不條理)’, ‘부주의(不注意)’ 등이 맞춤법 28항에 실려 있다.

이밖에도 용언의 활용 시 ‘ㄹ’이 줄어드는 예가 맞춤법 18항에 소개되어 있다. ‘가니, 노니, 부니, 둥그니, 어지니, 마지못하다, 마지않다, -다마다, -자마자’ 등도 ‘ㄹ’이 줄어진 형태로 적는다.

체언의 합성어나 파생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이 발음되지 않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ㄹ’을 살려 적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로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였다.

용언의 활용에서는 ‘ㄴ, ㅂ, ㅅ’ 및 ‘-(으)오, -(으)ㄹ’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살다-사네, 사세, 사오, 살수록’, ‘빌다-비네, 비세, 비오, 밭시다(빌음시다), 빌뿐더러(빌을뿐더러)’ 등이 그것이다. 용언 어간의 경우 끝 받침 ‘ㄹ’은 ‘ㄷ, ㅈ, ㅅ’ 앞에서는 줄지 않는 게 원칙인데, 관용상 ‘ㄹ’이 줄어진 형태가 굳어져 쓰이므로 준 대로 적는다 하였다.

본 탐구에서는 자음 탈락만을 소개하고 있다. 문법 교과서의 본문에서는 모음이 탈락한 예도 소개하고 있다.

① 다음 예들로 사잇소리 현상을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김밥 - 아침밥 인사말, 머리말 - 노랫말, 혼잣말
 고무줄 - 빨랫줄 회수(回收) - 횡수(回數)

•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발음 경향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어 보자.

• 위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여 보자.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두 형태소 사이에 사이시옷으로 표기되는 소리(/ㄴ/, /ㄷ/)가 첨가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ʔ] 소리가 덧난다고 보고 나머지는 자음동화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ㄷ/이 덧나는 현상과 [ʔ]이 덧나는 현상, /ㄴ/이 덧나는 현상을 나누어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ㄴ/소리가 덧나는 현상의 경우에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이거나 반모음 ‘ㄹ’일 때 나타난다.

사잇소리 현상의 본질은 표현을 똑똑하게 하려는 사람의 의도이다. 그러다보니 사잇소리 현상은 사람에 따라 규칙의 적용이 달라지는 일이 있어 표준발음을 정하고 그에 따라 맞춤법을 정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는 현상이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처럼 ‘김밥’은 [김:밥]으로 발음해야 하고 ‘아침밥’은 [아침:밥]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 표준 발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김:밥]이라고 할 때가 더 많다. ‘인사말, 머리말’의 경우도 ‘인사말, 머릿말’로 발음할 때가 많다. 어떤 한 가지 규정으로 못 박기 어려운 것이다.

마지막의 ‘회수(回收)’의 경우와 ‘횡수(回數)’의 경우 표기가 발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표기법 규정에서 한자어의 경우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횡수’의 여섯 가지로만 한정해 놓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호수(湖水)’와 ‘호수

(戶數), ‘시가(詩歌)’와 ‘시가(時價)’처럼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문제에 나온 합성어들은 왼쪽의 것은 사이시옷을 넣지 않은 발음으로, 오른쪽이 것은 사이시옷을 넣은 발음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모두 사전을 찾아보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다음 단어들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그 뜻을 조사하여 보자.

- 고기 + ㅅ + 배 → [고기빼] (뜻: 고기잡이의 배. 고기잡이 하는 배)
고기 + 배 → [고기배] (뜻: 고기의 배)
- 나무 + ㅅ + 집 → [나무짚] (뜻: 나무(장작)를 파는 집)
나무 + 집 [나무집] → (뜻: 나무로 만든 집, 물부리, 담배통, 물미 따위에 설대나 나무가 들어가 끼이는 부분)

③ ‘물약’, ‘술잎’의 발음은 각각 [물락], [술립]이다. 이 단어들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이소리 현상과 자음동화로 설명하여 보자.

물약 → [물낙] → [물락] / 술잎 → [술닙] → [술립]
이러한 예로 ‘옛’이 있다. ‘쌀옛’의 발음은 [쌀]으로 실현된다.

① 다음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에 대하여 더 알아보자.

- /ㄷ → ㄱ/ : 손가락 → [속까락], 뒷공론 → [뒤꽁논], 맏기다 → [막끼다]
- /ㅂ → ㅍ/ : 밥그릇 → [박끄륻], 접견 → [적견], 갑갑하다 → [각까파다]
- /ㄴ → ㅇ/ : 건강 → [경강], 둔갑 → [등갑], 반기다 → [방기다]
- /ㅁ → ㅇ/ : 감기 → [강기], 담그다 → [당그다], 꼼꼼하다 → [공꼼하다]

• 변동 과정을 관찰하여 이러한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여 보자.

허웅(1993)은 이 현상에 대하여 ‘끝소리 자리 옮기기’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혀끝(ㄷ, ㄴ) - 입술(ㅂ, ㅁ) - 뒤혀(ㄱ)의 닿소리가 이 차례로 ‘끝소리-첫소리’로 이어 나면, 앞 소리는 뒤 소리의 자리(서열)로 옮기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혀끝-입술
/ㄷ-ㅂ/→/ㅂ-ㅂ/ 들보다, 번벼듬하다, 갓방, 알보다, 밀바다, 낮바다, 꽃밭
/ㄴ-ㅂ/→/ㅁ-ㅂ/ 신밭
/ㄴ-ㅁ/→/ㅁ-ㅁ/ 신문, 눈물

혀끝-뒤혀
/ㄷ-ㄱ/→/ㄱ-ㄱ/ 받고, 얻기, 건기, 벗기다, 날개, 밑거름, 빗갈
/ㄴ-ㄱ/→/ㅇ-ㄱ/ 손가락, 반갑다

입술-뒤혀
/ㅂ-ㄱ/→/ㄱ-ㄱ/ 밥그릇, 입가심, 밍팡스럽다, 덮개
/ㅁ-ㄱ/→/ㅇ-ㄱ/ 감기

이에 대해 허웅(1993)은 교육적으로는 본디 발음을 추천해야 한다고 보았고, 어문규범도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은 발음은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도 닮음 현상(동화)에 해당하는데, 힘이 제일 센 것이 ‘뒤혀’이고 가장 약한 것이 ‘혀

끝’, 그리고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입술’이다.

/ㄴ/과 /ㅁ/이 /ㄱ/ 앞에서 /ㅇ/으로 되는 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이들 동화 현상들의 본질은 소리가 나는 위치 동화라는 데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ㄴ/과 /ㅁ/이 /ㄱ/ 자리에서 /ㅇ/으로 되는 것은, /ㄴ, ㅁ/과 성질이 비슷하면서 /ㄱ/과 같은 자리에서 발음되는 소리가 /ㅇ/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발음의 편이성 때문이라고 해야겠지만, 반드시 이런 바뀔이 있어야만 발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러한 음운의 변동 현상을 인정한다면, 이는 어떤 현상에 속하겠는지 생각하여 보자.

위에서 말하였지만, 이 현상은 동화이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뒤 자음의 조음 위치로 앞 자음이 끌려가는 위치 동화에 해당한다.

• 이들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ㄷ → ㄱ/ : 손가락 [순까락], 뒷공론 [뒤꽁논], 맏기다 [막끼다]
- /ㅂ → ㅍ/ : 밥그릇 [밥끄륻], 접견 [적견], 갑갑하다 [갑까파다]
- /ㄴ → ㅇ/ : 건강 [건강], 둔갑 [둔갑], 반기다 [반기다]
- /ㅁ → ㅇ/ : 감기 [감기], 담그다 [담그다], 꼼꼼하다 [꼼꼼하다]

② 다음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여 보자

• ‘네 것’이라는 말은 실제로 쓸 때에는 [니꺼]라고 발음하고 ‘니꺼’라고 적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둠별로 이야기해 보자.

[니꺼]라는 발음이 가지는 지금까지의 언어 습관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라는 단어를 ‘니’가 대신하고 있다.

둘째, ‘것’을 된소리 발음 ‘꺼’로 하고 있다.

셋째, ‘것’의 받침 ‘ㅅ’을 내지 않고 있다.

첫째 ‘네’ 대신 ‘니’를 쓰는 것은 /H/와 /k/ 모음이 잘 구별되지 않는 현대 국어의 특징 때문이다.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니’를 사용한다.

둘째, 된소리 발음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어감을 크고 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감을 크고 강하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에는 사회심리학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효과에 의한 것일 확률이 많다.

셋째, 받침 ‘ㅅ’을 쓰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말 할 수 없으나, 유아어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이고 어른스러운 말투보다 사적이고 친근한 말투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현대 국어에서는 광범위하게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터넷 상의 구어성 문어 사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 ‘커피를 진하게 마시다’에서 ‘진하게’를 [찐하게]로, ‘목에 가시가 걸리다.’에서 ‘가시’를 [까시]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단어의 첫소리에 오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까닭을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발음하는 단어들을 더 찾아보자.

과사무실/ 파사무실, 생머리/ 썩머리, 소주 / 쏘주, 세다 / 썰다, 잘리다 / 찔리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류의 된소리 현상이 단순한 잘못된 발음 습관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 즉, 언어 내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대로 오면서 점점 각박해지는 인심과 정신의 황폐화가 언어에 반영되어 된소리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다. 이러한 시간에서 말머리의 된소리되기 현상은 국어 순화의 차원에서 쓰지 말아야 할 잘못된 언어 습관 정도로만 언급되어 국어학의 이론 틀 안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된소리 되기는 사회 심리적 기능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강화 욕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문명의 진보로 인간의

물질 문명은 급성장하는 반면, 정신적인 공허감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심리적 억압감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를 표면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노력의 언어 활동 시에는 자기 과시 현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한편 정치 변동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발달해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권 교체, 국내외의 난리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생계가 어려워지며 지금까지의 규범이 무너져버리는 불안한 세태에서의 언어활동 역시 다분히 자기 과시적이 된다는 것이다. 경직된 심리 상태는 된소리의 특성과 부합되므로 사회 불안기에 된소리가 증가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대국어의 말머리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되기 현상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 수집한 말머리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낱말들을 계량적으로 검토해보면 이 현상이 토박이 말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한자어의 된소리되기는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그 예가 많지 않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말머리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토박이말의 상당수는 이미 방언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낱말이다. 서울 언어권 생활자들의 상당수가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대 서울말의 말머리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방언의 영향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말머리는 위치 상 앞선 형식의 형태나 말소리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자리다. 그러므로 말머리의 된소리되기는 말머리 자체의 음운론적인 자질이나 형태론적 특성에 한정해서 살펴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낱말이 말머리 된소리되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말머리 된소리되기에서 음운론적인 조건을 찾기는 어렵다. 형태론적으로 ‘생머리/쌍머리’와 ‘생활/쌍활’, ‘중국인/중국인’과 ‘중학생/중학생’등의 비교를 통해, 말머리의 된소리되기가 형태론적 차원에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능적인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대 서울말에서 말머리의 된소리되기가 음절 경계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와 달리 의미 기능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즉, ‘사나이/싸나이’, ‘생머리/쌍머리’, ‘조각조각/쪼각쪼각’등에서와 같이 말머리를 된소리로 발음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실현한다. 한편 ‘고물/꼬물’, ‘중국/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원 말에 비해 다소 비하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한다. 이는 된소리가 발음이나 청취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고추/꼬추’, ‘굴뚝/꿀뚝’의 경우 이들은 비록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휘>뿌리’와 같은 역사적 변화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강화 효과라는 기능적인 작용을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동음이의어의 회피를 들 수 있다. ‘힘이 세다/쌌다’, ‘숫자를 세다/쌌다’와 같이 본래 발음으로는 두 어형이 구별되지 않지만 ‘힘이 세다’에서 ‘세다’는 된소리 ‘쌌다’로 발음함으로써 [셈하다]의 의미를 갖는 ‘세다’와 구별된다.(박동근, 2000)

③ ‘효과’, ‘사건’, ‘방법’의 발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자.

-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위 단어들의 옳은 발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여 통계를 내어 보자.
- 위 단어들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효과 → [효:과] 사건 → [사:견] 방법 → [방:법]

일반적으로 ‘효과’는 [효과]로, ‘사건’은 [사견]으로, ‘방법’은 [방법]으로 발음하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법’을 [방뻬]이라고 발음한 적이 있어 텔레비전에 자주 오르내린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방언의 억양과 발음 때문이었다.

발음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므로 실제로 ‘효과’의 발음을 [효: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효과]로 발음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사실 [효:과]가 표준 발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효:과]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논리가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볼 때는 성립할 수 없다. [효과]라고 발음되는 단어가 여럿이어서 [효:과]라는 발음되는 단어와 구별되어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효과’는 한 단어밖에 없고, 따라서 어느 발음으로 하든 사람들은 ‘효과’로 알아들으며, 또한 현재는 [효:과]라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효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말을 단아하게, 혹은 아름답게, 혹은 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은 매력이다. 각 언어는 그 언어의 어감이 있다. 어느 말에나 어감이라는 것이 있고, 그 어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어린 아이의 발음이 아닌 어른의 발음으로, 화가 나 있는 듯 한 발음보다는 온유한 발음, 딱딱한 발음보다는 부드러운 발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일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슈베르트의 가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탈리아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 칸초네와 가곡들,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알린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고 한국어의 문화적 위상과 관련지어 발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학생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나누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변동규칙과 음운규칙

한 음소 안의 변이음으로 변하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의식에 직각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부장님’의 ‘ㅂ’과 ‘아버지’의 ‘ㅂ’의 차이가 한국인에게는 떠오르지 않는다. 변이음의 차이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에서 변이음의 차이를 갖지만 한국어에서는 다른 음소에 속하는 경우, 예컨대, ‘불’의 ‘ㅂ’과 ‘뿔’의 ‘ㅃ’는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의식에 직각적으로 떠오르는 서로 다른 음소에 속한다.

우리의 의식에 직각적으로 떠오르지 않은 한 음소 안의 변이를 음운 규칙이라 하고, 우리의 의식에 직각적으로 떠오르는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을 변동 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구분은 허웅 교수에 의한 것이다.

◆ 변이형태[allomorph]

어떤 형태소가 일정한 환경에서 그 형태를 달리할 때, 이들 형태를 동일 형태소에 속하는 변이형태라고 한다. 영어에서 명사의 복수 어미 /-z/, /-s/, /iz/는 모두 복수형태소 {-z}의 변이형태이다.

◆ 형태[morph]

형태소를 음운적으로 또는 철자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어떤 특정한 형태소는 그것이 형태상으로 추상적일 때 환경의 차이에 따라 몇 개의 다른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어의 복수 형태소는 /s/, /z/, /iz/ 등으로 표시된다.

◆ 형태소[morpheme]

일반적으로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를 말한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음소에 의해 표시되며, 그 이하의 의미있는 단위로 분할할 수 없는 것이다. 음소가 이음으로 이루어지듯이 형태소도 변이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음소의 연쇄로부터 형태소를 찾아내고 또 설정한다고 주장하여, 형태소 설정 방법이 큰 문제가 되었으나,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